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심리 상담 / 치료
이경민
존스 홉킨스 대학원 석사
571.240.6313
rachellee@sunstonecounselors.com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97호

Thursday, May 15, 2025 A

트럼프는 서민 대통령, 공약 이행 중

약값 인하, 부자증세...
정책 선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약품 가격 인하와 부유층 증세 카드를 동시에 꺼내드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율 관세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급변침하며 대중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월스트리트 자본과 대항해 친서민정책을 취해왔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가 왜 전세계 거대 제약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 희생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약값을 현재보다 최대 80% 낮추라고 제약사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 중의 하나였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해외보다 비싼 항암



14일(목)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부유층 감세에 반대하는 참가자가 손팻말을 내걸었다. [로이테]

제 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나 제약업계 반발과 법정 공방 탓에 실패한 바 있다.

연방당국 자료에 의하면 미국 약값은 외국 평균의 3배에 이른다.

보험사와 제약사, 병원 등과 얽힌 복잡한 먹이사슬과 고율 거래수수료 관행 등으로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에 극좌

파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도 환영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소득층 증세 카드 또한 그리 낯설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월스트리트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부유층 증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감세공약과 모순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총량에 의한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유층 증세 의지는 매우 확고해서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에게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기존 37.0%에서 39.6%로 2.6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팁, 추가 근로수당,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면세 공약도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중간선거 득표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메디메이드 축소, 부유층 감세 등의 카드를 거론했다가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참패했던 기억을 통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중범죄 불체자도 ICE 통보 금지 논란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정부가 중범죄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신뢰 정책 조례'(Trust Policy) 7항과 8항을 삭제했다. 두 조항은 미국 불체자 중 갇힌 조직원이나 지명수배자, 중범죄 전력자, 테러 전력자, 인신매매 전과자 등의 경우 지역정부 경찰이 즉각 ICE에 통보하고 신원을 인계하도록 했으나, 이번엔 두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중범죄 전력자나 갇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ICE에 통보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례안에 5명의 수퍼바이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은 조례안 변경 이전에도 ICE에 매우 소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정부 법집행 기관의 연방이민당국 협조 의무화를 규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카운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 ‘백도어’ 설치 의혹 조사

연방 당국이 중국산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에서 정보유출 통로로 의심되는 ‘백도어(Back door)’ 통신장비를 발견하고 안보 위험성을 검증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에너지부가 ‘전력 인버터’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부품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전력 발전망에 연결하는 기계장치로, 대부분 중국산이다.

당국에서 전력 인버터를 분해해 보니, 일부 중국산에서 제품 매뉴얼에 명시하지 않은 통신장비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도어 의심 부품은 방화벽을 피해 직접 접근이 가능한 통신 채널과 연결돼 있으며 매뉴얼에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방화벽을 빙 둘러 우회하고 원격 조종으로 전력 인버터 전원을 차단하거나 설정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력 공급망 자체를 뒤흔들어 대규모 정전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한 백도어가 사실상 미국의 전력공급망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전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중국은 전력망 같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교란시키는 행위를 할만하다고 여긴다”면서 “중국산 전력 인버터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상당히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에너지부는 “현재 편견없이 전력 컨버터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제품 매뉴얼에 누락된 통신장비를 밝혀려고 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물가가장 높은 이유

최근 2년간 메릴랜드 지역 물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4월 소비자물가 보고서에 의하면 볼티모어 지역(Baltimore-Columbia-Towson, MD)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3.0%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이번달 조사대상 11개 메트로권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증가율도 0.9%로 가장 높았다. 4월 전국 상승률은 2.3%로 2021년 2월(1.7%) 이후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릴랜드는 특히 주거, 의료, 음식 등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릴랜드가 팬데믹 이후 재정난을 겪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 고갈 사태를 맞았으며, 재정 확대에 따른 고물가 및 임금 상승 압력 순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했다는 것이다. 결국 타 지역에 비해 물가 완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월 물가 조사 대상지역이었던 워싱턴 지역(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의 CPI는 2.4%, 1월 대비 상승률은 0.8%였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팔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2025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더 나은 내일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준비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517·SAT 8am-4pm
where? 열린문장로교회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t.703.318.8970
푸드 코트 김치 클래스 아트세일 아트 컨테스트 야외 공연 etc.
키즈 코너: Pony Ride 문바운스 각종 게임 등등
열린문장로교회 OPEN DOOR PRE-CENTERMAN CHURCH

OPEN DOOR ART CONTEST
0517·SAT 8:30am-12:30pm **열린문 아트 컨테스트**
등록 2025년 5월15일(목)까지
opendoorpc.org/art (온라인 등록만 가능)
대상 | 5세 Pre K~12학년 *참가비 \$30(형제할인 2nd 자녀 \$20)
주제 | 당일 공지
시상 | Pre K / 1~4학년 / 5~8학년 / 9~12학년
장소 | 열린문 장로교회 영어권 빌딩 위십센터 체육관 (2999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문의 | artcontest@opendoorpc.org
심사 |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회원 *제출된 그림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최 | 열린문장로교회
시상내역

시상내역	Pre-K	1st~4th	5th~8th	9th~12th
1등(금상)	\$300	\$300	\$300	\$750
2등(은상)	\$200	\$200	\$200	\$450
3등(동상)	\$100	\$100	\$100	\$300

주최측에서 제공한 도화지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미술도구 및 개인 물품은 각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추천 준비물: 미술도구 일체, 도화지 받침대)
주의 사항

곳곳에 알찬 ‘시니어 할인’ 혜택

식당, 약국, 통신사 등 할인 제공
아이홈 10%, 데니스 15% 저렴
AARP회원, 처방약 61% 깎아줘

정부와 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다. 식당, 통신사, 약국, 항공사 등 여러 업체는 시니어 할인 제도를 운용 중이며, 가주 정부도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상품 서비스 리뷰 사이트 웰렛구루가 최근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할인 혜택을 정리했다.

먼저 요식업계에서는 서브웨이, 아이홈, 애플비, 던킨도너츠, 칩필레, 와플하우스, 엘포요로코(EI Pollo Loco) 등이 55세에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맥도날드는 커피와 음료에 대해 별도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이 즐겨 찾는 데니스는 15% 할인과 함께 일부 메뉴를 시니어 전용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은퇴자협회(AARP) 회원 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통신사도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AT&T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내셔널 플랜’을 판매 중이다. 이는 월 29.99달러에 휴대폰 이용자 간 무제한 통화, 200분 무료 통화, 야간 및 주말 시간대 500분 무료 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모빌(T-Mobile)은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여러 시니어 요금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제일 저렴한 상품은 월 45달러다. 무제한 통화 및 문자와 50GB 크기의 데이터를 제시한다. 버라이즌 역시 55세 이상 시니어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월 62달러에 무제한 통화, 문자, 4G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약국 체인에도 시니어 할인 혜택이 있다.

라이트에이드(Rite Aid)는 65세 이상을 위한 ‘웰니스 65+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 최대 20% 할인과 무료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월그린은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마이월그린스(myWalgreens)’와 연계해 시니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약국 할인 카드는 알엑스프리카드(RxFreeCard)는 대부분의 약, 심지어 반려동물 약까지

시니어 할인 어디서 받아

음식점	혜택 내용
버거킹	10% 할인, 간헐적 음료 프로모션
맥도날드	커피 및 음료 할인
웬디스	무료 음료 제공 (일부 지점은 10% 할인)
소닉	10% 할인
서브웨이	10% 할인
애플비	10% 할인
아이홈	시니어 전용 메뉴 운영, 10% 할인 제공
데니스	시니어 전용 메뉴 운영, 할인 가격 적용
골든코럴	60세 이상 할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10% 할인

출처: 웰렛구루

지 할인 혜택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처방약 비용 부담이 큰 시니어라면 AARP에 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AARP 회원은 식품의약국(FDA) 승인 처방약을 최대 61%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처방약 할인만으로도 충분한 가입 가치를 지닌다.

아마존은 시니어 중 메디케이드, EBT, SNAP 카드 소지자를 비롯해 정부 생활 보조 수혜자에 한해 14.99달러인 프라이م 멤버십 가격을 6.9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MAGA 세력’ 교황 친형 극우 논란에 “동생은 제가 안 변할 것 알고 있어”

레오 14세 신임 교황의 친형이 자신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극우 성향을 드러낸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의 3형제 중 맏형인 루이스 프레보스트(73, 사진)는 레오 14세가 즉위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큰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뭐 내가 올렸다”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안 올렸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프레보스트는 그간 페이스북에 미국 극우 세력에 찬성·동조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저속한 욕설로 비하하거나 펠로시 전 의장의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가짜 정보 등도 공유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독재로 몰아넣고 있다.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언쟁을 벌인 직후 민주당

당 인사를 만났을 때는 그 민주당 인사를 향해 “반역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이런 게시글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돼 있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당신의 동생이 창피해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프레보스트는 최근 한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해 스스로를 ‘마가’ 지지자라고 소개하며 친동생인 교황은 자신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레오 14세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라며 “중립적으로 일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아마 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저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톤을 좀 낮춰 말할 것”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학군 재조정, 학교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학군 고립지역(Attendance islands) 해결을 목적으로 대규모 학군 재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곳곳에서 반발이 들리고 있다. 교육청은 작년 9월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최종 계획안 발표가 임박한 상태로, 수백여명의 학

생들이 타 학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당국에서는 청문회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로 타 학군으로 배정될 경우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지역 거주자의 반발이 거세다.

조지메이슨 1만1800명 졸업, 역대 최고

조지메이슨대학이 오늘(15일) 졸업식에 모두 1만1800명의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졸업생은 49개주, 전세계 117개국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졸업식 학위자는 1만1268명이었다. 학부 졸업생의 41%, 석박사 졸업생의 48%가 이공계 STEM 분야였다. 졸업생의 1/4은 가족 내에서 첫번째 4년제 학위자였다. 대학 자체 조사에 의하면 조지 메이슨 대학 졸

업생의 85%가 졸업 6개월 내에 취업하며 사회 초년생의 중간연봉은 7만 달러 수준이었다. 졸업생이 가장 많은 전공은 경영학, 정보통신, 컴퓨터 사이언스, 심리학, 범죄학, 법과 사회 등이었다. 최대 전공은 데이터 분석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특수 교육, 교과과정 및 지도, 비즈니스 행정 등이었다. 박사학위는 400명으로 교육, 심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갈등조정학 등이 많았다.

졸업시즌 브래덕 로드 정체, 6월16일까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오는 6월16일까지 각 단과대학과 페어팩스 카운티 18개 고교 졸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페어팩스 시티와 브래덕 로

드 인근 지역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고교 졸업식은 6월2일부터 11일까지 일일 세 고교씩 치워진다.

SKT 미주한인도 유심 보호 서비스

SK텔레콤은 해외 장기 체류자 및 여행중인 약 30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보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주 한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SKT 가입자들이 유심 도용을 방지하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심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등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밍 이용시 사용이 제한돼 해외장기 체류 혹은 로밍 이용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지타운 대학 반이스라엘 방문학자 석방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조지타운 대학 방문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인도 국적자)의 석방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테러집단 하마스의 선전 및 선동 내용을 확산시키고,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

의를 조장한 혐의로 텍사스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판사는 수리 연구원이 버지니아 자택 거주지 제한 조건과 텍사스주의 이민 재판 출석 조건으로 석방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5월 15일(목) 81-65

16일(금)	85-66		19일(월)	79-57	
17일(토)	86-65		20일(화)	76-62	
18일(일)	83-61		21일(수)	70-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NMLS #: 2425871

융자 가능한 주

* 버지니아

* 메릴랜드

* 워싱턴 DC

* 뉴저지

* 조지아

* 웨스트 버지니아

* 노스 캐롤라이나

* 사우스 캐롤라이나

* 델라웨어

* 알라바마

* 플로리다

* 테네시

* 미시간

* 캘리포니아

* 펜실베이니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방심 금물’ …MD서 증오범죄 발생

경찰, 용의자 4명 추적

지난 10일 메릴랜드에서 경악스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메릴랜드주 경찰(MSP)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경 프레드릭의 한 상가건물에서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인 25세 남성(사진)은 상가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4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들은 성적 지향을 겨냥한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증오범죄로 추정하고 감시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체포 추적에 나섰다. 남성 3명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고, 4번째 남성은 회색 후드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팬데믹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증오범죄가 다시 심심찮게 발생하

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 땅을 쳐다보며 걷지 말 것 ▲범죄피해를 당하면 증거를 남길 것 ▲미행당할 경우 인근 경찰서나 사람이 많은 장소로 이동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 경찰은 증오범죄는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절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며 안이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 경찰은 프레드릭 증오범죄 사건에 정보가 있는 사람은 301-600-4151로 제보를 요청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DC 노숙자 5138명 집계

전년보다 감소

한인도 약간명



워싱턴DC 노숙자 수가 작년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DC의 노숙자가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DC 정부가 발표한 ‘2025년 DC 노숙자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시내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9% 줄어든 5138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이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7000여 명에 달했던 노숙자 수가 2022년에는 4410여 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DC 노숙자 가정은 18.1% 줄었고, 가족의 나이가 18-24세인 가정은 35%나 감소했다. 노숙자 가운데는 한인도 약간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C정부 레이첼 피에르 인적서비스국 임시 국장은 “노숙자 문제가 점점 개선되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앞에 놓은 도전이 크지만, 우리는 노숙자들이 안정을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에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DC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DC 중심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최영수(가명.65) 씨는 노숙자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다며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북한10년 후 ICBM 50기 보유”

‘적성국 미사일 위협’ 보고서

펜타곤 최고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가 2035년 북한이 핵탄두 탑재 가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 또한 10년 후 핵탄두 탑재 가능 ‘우주 궤도 미사일’ 40발 이상을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방어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DIA의 기밀 해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 전체를 사거리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으며,향후 10년간 수십 기의 ICBM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그레고리 기요 미국 북부사령관도 “북한의 무기 보유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 미국의 탄도미

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운 미사일 방어시스템 ‘골든 돔’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첫 국정 연설에서도 골든 돔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었다.

기요 사령관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9형이 고체연료 설계로, 발사 준비 기간이 짧아 우리의 대응능력을 축소시킨다”면서 “북한이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기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욱재 기자



혼다차 공장,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일본 2위 완성차 업체 혼다가 최고 인기 SUV인 CR-V 생산공장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혼다는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생산

최적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앨리스 공장에서 CR-V와 시빅 등을 생산해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혼다는 연간 142만대의 미국 내 판매량 중 100만대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비중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자력 정하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채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아파트/Multi-Family 투자

월\$5,600 수입, 버지니아 군부대 옆 아파트 4개 \$ 700,000

월 \$6,350 수입, 버지니아 알링턴 아파트3개, \$ 1,200,000

월 \$11,350 수입, 버지니아 알링턴 아파트5개, 주차5개, \$2,625,000

월\$7,000 수입 메릴랜드 아파트3개, 메트로에서 300피트 좋은 투자상품, \$770,000

(세금, 보험, 관리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식당 자리

센터빌 햄버거식당 자리 1928 SF

알렉산드리아, 스시식당 자리 3814 SF

메릴랜드 락빌, 고깃집 자리 6,195 SF

메릴랜드 락빌 스시, 이자카야 자리, 4,675 SF

그로서리

스파니쉬 마켓 할 자리 알렉산드리아, 2000sf

주책 구입후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매 매

VA 스텔링, 창고 2,000 SF,드라이브인, \$660,000

창고 VA 캔들리, 21,000 SF, 주차 45대 나눠서 임대가능, \$ 5,600,000

MD 게이더스버그 교회자리 대략100석 주차 65대, \$ 1,500,000

MD 컬럼비아 사무실건물 7,700 SF, \$ 2,175,000

임 대

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장 1개, 월\$6,500

MD 락빌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고객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집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거래한다' 는 의미를 넘어서, 한 가정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은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울고,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집을 소개한다' 는 표현 보다는 '집을 찾아드린다' 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몇 분인지, 아이들이 있는지, 출퇴근 거리는 어떤지, 어떤 방향의 햇살을 좋아하는지, 조용한 동네를 원하는지 혹은 도심의 활기를 선호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내기 위한 귀중한 단서들입니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부동산 지식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저는 단순히 보이는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그 집이 고객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이 가진 구조적 안전성, 자연 채광, 숨겨진 소음, 동네 분위기와 이웃의 특성까지도 하나하나 검토하며, 제가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집 안거를 먼저 고민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는 고객님들께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곁을 지킵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함께 읽어드리고, 용자나 보험, 세금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는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객의 삶을 함께 살리고, 고객의 미래를 응원하는 조력자입니다. 그 여정에서 제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다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을 담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집 안에서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고객님의 미소로 가득차기를,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빌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연제, 어디서든 만나지 리스퀀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주책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빌 대표
"내 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국제법 위반여부 질의에 선관위 ‘답변 거부’

“지나치다” 비판 거센 재외선거관 ‘선거법 단속’

한국법 근거로 미국서 단속
미국 정부 동의 여부 모르쇠
“당사자가 조사에 동의” 강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의 미국 내 선거법 단속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공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반축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선거연구)

임에도 미국 등 해외에서 벌이는 조사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미국 등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에 관한 본지 문의에 대해 2주가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재외선거관)재외선거사무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은 법 제 218조의28 및 제27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 근거로 한국 법령만 들이댄 셈이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주권침해 등 국

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상 한국 정부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사법공조(Rechtshilfe)’ 절차를 거쳐야 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검찰 영사가 주권침해 등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자체 수사나 체포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국제법 위반 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가 국무부 등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자 및 현지 언론사 대상 조사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 주권침해 문제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 선거범죄 조사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 조사는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며 주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외선거관의 선거법 위반 단속 행위가 주권침해 논란을 키우자 ‘당사자의 동의’를 강조한 답변도 공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은 한인 시민권자, 미국법인 한인 언

론사 등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촉, 면담, 자료 요구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LA타임스, 뉴욕타임스 등에 한국 선거 관련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지면 광고가 게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행위라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인 사회는 선거법 단속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민주당협회(KADC) 전 이사장인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한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미국 내에서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제 기자



K팝 대부 이수만 다큐 공개 이수만 A20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가 지난 12일 LA 할리우드에서 위치한 뉴이하우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이수만 : 킹 오브 케이팝’ 시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상영된 다큐멘터리는 이수만 프로듀서의 생애부터 HOT, 보아, 슈퍼주니어, 에스파 등 K팝 스타들의 기획 배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등 그의 음악 인생과 문화적 영향력을 조명했다. 다큐멘터리는 팅 푸 감독이 연출했으며, 13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김경준·정윤재 기자

아동 음란물 교사 한국서도 범행 가능성

“한국 체류때 16세 영상 찍어”
필리핀에 제작 의뢰해 판매

50대 음악 교사와 20대인 필리핀계 의료 종사자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판매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특히 체포된 교사는 수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음악 교사로 일하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8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조슈아 드윗(50)을, 전날인 7일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크리스토퍼 앨런 티소이(27)를 각각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공모 등 혐의로 연방 검

찰에 의해 기소됐다.

ICE에 따르면 드윗은 지난해 9월부터 스냅챗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스냅챗 계정에 아동 성착취물을 업로드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지난 1월 케임브리지 사법 당국의 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드윗은 해당 성착취물 공유 당시 “대부분 영상은 필리핀에 있을 때 찍었고, 10세, 12세와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 있을 때는 16세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매체 보스턴 글로브는 드윗의 개인 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한국에서도 음악 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드윗은 텔레그램으로 티소이와 연락하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다. **강한길 기자**

치솟은 생활비 탓에… 10만불 벌어도 저소득층

OC·SD·샌타바버라, 1인 가구 저소득 기준 급등
중간소득도 미달…주정부 4개 특별위원회 급조

주거비 부담이 큰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조만간 저소득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택도시개발국(HCD)이 발표한 4월 자료를 인용해 오렌지, 샌타바버라,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가까운 시일 내에 ‘1인 가구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올해 샌타바버라카운티의 1인 가구 저소득층 기준은 9만8850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48% 상승한 수치다. 오렌지카운티(OC)도 5년 동안 32% 증가해 9만4750달러, 샌디에이

고카운티는 43% 오른 9만2700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북가주의 마린, 샌마테오, 샌프란시스코, 샌타클라라카운티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올해 이미 1인 가구가 연간 10만 달러를 벌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이 아니라, 살인적인 주택 가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주부동산중개업협회(CAR)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OC 및 샌타바버라 카운티의 단독 주택 중간 매매가는 약 150만 달러에 달했다. 샌디에이고 역시 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조차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간소득조차 저소득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샌타바버라카운티의 중간 소득은

저소득 기준선보다 1만5500달러 낮았으며, LA카운티는 그 차이가 1만250달러이며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과 생활비 간의 차이가 심화하자 주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로버트 리바스 가주 하원의장은 “캘리포니아의 생활비는 가주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비, 육아비, 식비, 교통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은영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타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트럼프 “파월 뭐가 문제야”…물가 주춤하자 금리인하 압박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에너지·식료품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대문자 ‘DOWN!!!’을 써 가며 물가 ‘하락’을 강조한 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유럽과 중국이 그랬듯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너무 늦은 파월은 뭐가 잘못된 걸까. 반영할 준비가 된 미국에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이 항상 늦는다고 비판하며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속히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차별 부과한 ‘관세 폭탄’도 부분적이거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4월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63억 달러

(약 23조9000억 원)로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87억5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87%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는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며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지난해 2.8%를 찍은 성장률과 비교해 예상보다 큰 하락폭을 보이자 초고물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이 경기 침체를 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며 방어막을 펴는 와중에 4년 만의 최저 물가 상승률, 월간 최고치를 갱신한 관세 수입 등 일부 호전 지표가 나오자 다소 고무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을 거듭 압박한 것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키우기 위한 계산에서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지난달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4월부터 교역 대상국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기본관세 10%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까지 미 연방 정부 적자는 1조5000억 달러로, 4월에 거둔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1년 내내 유지하더라도 전체 재정적자의 1.8%에 불과하다.

미국 소비·투자 위축의 핵심 이유로



13일 캘리포니아주 샌 페드로항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합뉴스]

높 등 품목별 관세와 4월부터 교역 대상국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기본관세 10%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까지 미 연방 정부 적자는 1조5000억 달러로, 4월에 거둔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1년 내내 유지하더라도 전체 재정적자의 1.8%에 불과하다.

미국 소비·투자 위축의 핵심 이유로

지목되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경기 둔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것도 그래서다. 전날 아드리안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미·중 관세 협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률 둔화를 포함한 경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12일 기준 17.8%로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산연구소는 “관세는 의류·섬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의류 가격이 14%, 신발 가격이 15% 오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각각 16%, 19%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 정책이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0.7%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헨스 이코노미스트도 “관세로 인해 6월과 7월 물가가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하향세를 그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공개하는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로 부정평가(43%)보다 9%포인트 높았다.

김형구 기자

“바이든, 15년지기 못 알아봐” 조지 클루니가 손절한 사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월체어에 탈지 보좌관들과 논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기자 두 명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4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2년에 대해 아는 200명 이상의 인사들을 인터뷰해 쓴 책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의 일부다. 악시오스의 알렉스 톰슨,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가 저술해 이달 20일 출간될 예정이다.

책에 따르면 바이든은 2023~2024년 신체적으로 크게 쇠약해졌다. 특히 척추가 심각하게 퇴화하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또 한 번 심각한 낙상이 발생하면



조 바이든(오른쪽) 당시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는 15년지기인 조지 클루니. [AP=연합뉴스]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월체어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사적으로 조언했다. 이에 바이든이 월체어를 사용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고 책은 전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들은 바이든의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참모들이 일찌감치 인지했을 개연성이 컸음에도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6월 말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 국민에게 문제를 드러내기까지 쉬쉬했던 정황을 파헤쳤다.

또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LA에서 열린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저자들은 짚었다. 조지 클루니는 오랜 민주당 지지자다.

행사에 앞서 클루니가 바이든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보좌진이 “대통령님, 조지 아니요?”라고 하자 바이든은 “그래요,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이 때 바이든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한 게 분명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바이든은 2022년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케네디센터 메달 수여 행사에서 클루니와 만나 악수했다.

서유진 기자

신호 위반에 걸려 불법 체류 발각

경찰이 실수로 검문한 여대생 무혐의 처리됐으나 추방 위기

경찰 실수에 의해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검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당초 이 대학생이 몰던 차량이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해 정차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은 물론 불법 체류 신분까지 드러났다.

뉴욕포스트는 12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타발(19·달튼커뮤니티칼리지)이 현재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조지아주 달튼경찰국 측은 적

색 신호 우회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담당 변호사인 키크 맥스터는 “경찰의 실수 하나로 젊은 여성은 자유를 잃었고 추방 위기에 처했다”며 “도피 위험이 없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추방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석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아리아스-크리스토타발의 부친 역시 2주 전 과속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상업용자·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301-275-1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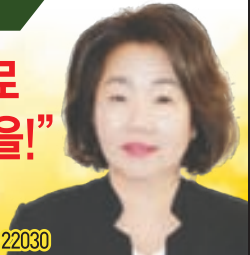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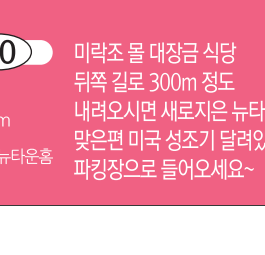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왕금(미락조) 웨일라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왕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오일머니’ 850조원 끌어낸 트럼프 “나는 피스메이커” 자랑

(peace maker·평화중재자)

관세엔 말 아끼며 외교안보 행보
사우디 찾아 빈 살만과 경제협정
시리아와는 25년 만에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의 첫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 달러(약 85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꺼내들며 “나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평화중재자)”라고 주장하는 등 성과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국방, 자원 분야의 협력안이 담겼다. 미국 12개 방산기업이 사우디에 1420억 달러(약 201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장비를 판매하는 계약을 비롯해 사우디 군대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미국이 사우디에 안보 협력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빅딜’의 성격이 강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리야드의 킹 칼라드 국제공항 청사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우디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행에게 현대의 의미로 아랍 커피를 대접했다. 그러나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는 당황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손에 들고만 있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상에선 트럼프와 사우디 중 어느 쪽이 ‘외교 결례’ 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한 듯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미뤘던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꺼내 들었다. 먼저 2012년 단교한 시리아에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25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의 새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이란에 대해선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합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고 테러 지원을 멈춰야 한다”며 “이란이 이웃 국가를 계속 공격한다면 미국은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안보 관련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내 소망은 피스메이커이자 통합자(unifier)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

선순위는 항상 평화와 파트너십”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이 미국을 “약탈했다”며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난다.

그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접촉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내가 가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동행 중인 CBS 기자는 “트럼프가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리고 금요일

일쯤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고 X(옛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양측의 접촉은 러시아가 먼저 제안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역제안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지만, 크렘린궁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관련 언급을 최소화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직접 상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타결이 임박해 돼지고기와 에탄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답했다. 스스로 답판에 나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관세전쟁을 ‘승리’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극단적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물러서서 스스로 승리를 선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가 당면한 시험대가 될텐데, 관세에서 트럼프가 40일만에 물러난 것을 확인한 러시아와 이란은 트럼프의 행동을 지켜본 뒤 전략을 다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태화 기자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설명때 “통일”...이 표현에 대만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과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의 회담에서 해당 표현이 등장한 점을 두고 대만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하며 진

화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요청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는 중국에도, 우리(미국)에도, 평화와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이라는 표현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집권 민진당 입장에서 민감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미국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대만 주재 미국 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통일’은 미중 무역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명백히 미중 무역관계를 지칭한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만 정부와 외교 인사들 사

이에 미국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대만 총통실 역시 성명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대만 관련 사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부인이나 시인을 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대만사무판공실은 “국제사회가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 반대하고, 국가통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중국 인민의 정의로운 일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 쇠이화민은 중국중앙TV(CCTV)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대만을 장기간 말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라는 잘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포기하겠다고 내놓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말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프란치스코 계정 물려 받았다...레오 14세 교황, SNS 첫 게시글은

레오 14세(사진) 신임 교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와 소통을 시작했다.

교황청은 13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엑스(X)와 인스타그램 공식 교황 계정을 통해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2012년 12월 12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시절 개설된 뒤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용한 엑스 계정(@Pontifex)을 계승했다. 교황을 일컫는



라틴어 폰티팩스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인스타그램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3월 19일 개설한 계정을 이어받았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첫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선출 이후 공식 일정 사진 17장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에, 그리고 어떤 나라, 어느 곳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12년 동안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총 5만여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총 270억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혜정 기자

러 파병 경험 과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길리슈트(수풀로 뒤덮인 위장복)’ 차림 특수부대원들의 훈련을 시찰하면서 ‘전쟁준비 완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체득한 현대전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북한군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만능대대 기준 돌파를 위한 특수작전 구분대들의 전

술종합훈련 등을 참관했다. 만능대대란 우수 부대에 수여되는 북한식 칭호로 보인다.

매체는 김정은이 “우리 혁명무력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세계 급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 완성”이라고 전했다. 반세계급 전선이란 용어를 쓴 건 ‘미국제국주의’에 맞서 러시아와 연합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결혼 이민
- 망명 신청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nn@prosperlawpllc.com



2025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지부 결식아동 돕기 자선골프대회

GCF MISSION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생긴 세계 각처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의 급식, 교육 및 선도를 통해 희망을 심어준다.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2025년 5월 27일 (화)

• 오전 10시 30분 샷건 • 사전 등록: 오전 9시부터

Dominion Valley CC

15200 Arnold Palmer Drive Haymarket, VA 20169
(T. 571-222-6900)

골프대회장

김종준 (스마트보험 대표)

주최

GCF 버지니아 지부 회장 김남숙

경기위원장

박태영 프로 (워싱턴 한인 골프협회회장)

준비위원장

로사박 (미주한인재단회장)

준비위원

최평란, 김지혜, 남정옥, 손숙희, 윤애경, 신지민, 오현주, 손정화, 박순옥, 최조안나, 김혜량, 김진주, 황인선, 이형주, Ashley Kim

언론사 후원

① 워싱턴 중앙일보

행사 문의

최평란 이사 (202-460-8394) / 김남숙 회장 (703-999-9489) / 손숙희 부회장 (516-242-8466)
윤애경 부회장 (571-265-3534) / 김정희 총무 (202-277-0608)

참가비

\$150 (그린피, 점심, 저녁, 음료 포함) 많은 상품, 푸짐한 경품

조편성

• 챔피언조 (스크래치) 남성 1, 여성 1 / • 일반조 (갤러웨이) 남/녀 각 1,2,3등

시상

• 챔피언조 남/녀 각 1명 \$500 • 장타상, 근접상, 퍼팅 컨테스트, 포토제닉상
• 일반조 남/녀 각 1, 2, 3등 • 베스트 의상 남/녀 외 다수



특별후원

대회장 김종준 스마트보험대표

다이아몬드 (\$3,000)

최평란, 손종락, 손목자재단, 김종준

플레티늄 (\$2,000)

김남숙, 박완다, 베스트케어 치과의 백용남

골드 (\$1,000)

손숙희, 윤애경, 김지혜, The Kims LLC.com, 국가원로회 홍희경 상임의장, 한인커뮤니티센터 김태환 이사장, Fiesta Supermarket 이종국, Tiger Supermarket 김성환, Maryland Label & Design 최종규, Bestway Supermarket 최일규, OH! Market 오만, K Market 김덕형

실버 (\$500)

김정희, 정희중, 강 영, 오현주, 버지니아한인회 회장 김덕만,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김진아 이사장, 늘푸른골프, 워싱턴 홈케어, 콜럼비아대학 김광수 총장, Love Hand Home Health, New Age Systems INC (Jane Yoon), Auto Body World, Eastern food

브론즈 (\$300)

박순옥, 최조안나, 김혜량, 황인선, Ashley Kim, 이형주, 남정옥, 이순성, 손정화, 김현숙, 강정임, 아이린신 주하원의원, AKUS(한미연합회)회장 오인환,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김유숙, 한미여성재단 회장 강명희,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 송재성, 전 1310 라디오방송 대표 이현애, 재미장애인협회(KADPA) 이사장 정영미, 최명현, James Chung 부동산, 허범희 회계사, 심현섭 회계사, Yogi Sushi 황은숙, 소 레스토랑, Mr. Mrs. Sushi 황은영, Keymax Construction, First Care 이신욱 대표, John Shin 변호사

후원

석은옥, 허정숙, WGCC(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김영란 단장,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회장 우태창, 재향군인회 김용운 부회장, GCF워싱턴지부 이경애, 김선화, 김계옥, 서인순, 이영자, 진숙Poulson, 이순자, 심모니카, 구현정, 릴리김, 이복순, 김지영, 일맥서숙문우회, 산악회 큰바위, 산악회 모래, Kay Isaacs, 한국미용실, 오징어 모임, 토요산악회 한강순, Faithful Floors INC.

물품 후원

* 로사박: 조니워커 블랙 큰병 1, 조니워커 블루 1, 파트론 투킬라 1, 나이키 골프 셔츠1, 소형 여행가방 1 (\$1,000상당)

* JMB retail 대표 Jai Kim 골프용품 (\$1,000상당)

* 아토미 박우수 (\$1000+)

* 패어팩스 조선회로 식권5장 (\$500상당)

* Chadol Korean BBQ 식권10장 (\$500상당)

* 한강 식권4장 (\$200상당)

* 센터빌 본가 식권4장 (\$200상당)

* 웅기식당 식권 4장 (\$200상당)

* Korean Cuisine식권 4장 (\$200상당)

* 설악가든 식권 2장 (\$100)

* 유리스킨케어 쿠폰3장 (\$500상당)

* WYNN스킨케어 쿠폰 4장 (\$480상당)

* 홍미용실 쿠폰4장 (\$440상당)

* 김예림 골프전용 포커스 천연멀티Vit.5통 (\$350상당)

* 손정화 일제 골프bag과 골프모자 (\$400상당)

* 황정은 소반 밀키트 4개 (\$500상당)

* 아토미 김순정 (\$300상당)

* 김용권 척추신경 X-Ray & 무료진료권 (\$300상당)

* Haha Pink 골프용품 & 웨어 (\$300상당)

* 타마 최윤정 교베진주 김목걸이2개 (\$200상당)

* 정재민치과 화이트닝키트 (\$200상당)

* 롯데부피고 물품 (\$150상당)

* 스텔라스킨케어 쿠폰 (\$120상당)

* 이영자 (남성T셔츠 & 골프장갑)



글로벌 어린이재단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199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난 24년간 오백만불 이상을 모금하여 한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교육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CF에 내시는 기부금은 100%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해수부를 부산으로” 김문수 “우주항공 획기적 지원”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도 옮겨올 것”
부산·거제 등 ‘이순신 벨트’ 공략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틀째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윤석열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당의 1호 당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내란 수괴뿐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통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산은 민주투사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적 고향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시민을 믿는다”며 좌우를 넘나들었다. YS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참 위대한 분이다.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었지만,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셨지 않나”라고 말했다.

영남권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에게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한다. 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만큼은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가 HMM이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엔 영호남의 경계인 화개장터를 거쳐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에서 유세를 펼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서면을 찾아 새끼손가락을 걸어 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 14~15일만 보면 남해안을 따라 경남과 전남을 가로지르는 동선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국난극복 이순신 호국(護國) 벨트’ 유세”라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국난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려는 이 후보의 포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부산·창원·거제=조수빈 기자

“박정희처럼 과학기술 대통령 될 것”
석동현·박철언·정호용, 캠프 합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 등 경남 일대를 돌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부터 사흘째 영남 구석구석을 훑었다. 첫발부터 단단히 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전략이다. 이날의 화두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였다.

진주 유세에선 “포스코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했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에선 “우주항공 부문이 단기간에 크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목적을 높였다. 관계자에게서 ‘예산 2조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2조원을 확보하면 뭘 할 수 있냐. 그림이 안 그려진다. 10배 정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 5% 연구개발(R&D) 투자 ▶과학기술인 처우 보장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2배로(1200억원) 확대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 10배로 확대(1만 명) 등의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두산에너지빌리티 방문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보수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사천 항공정비업체에서 헬기에 탑승해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김 후보 캠프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12·3 비상계엄 이후 법률대리인 겸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또한 박철언 전 정부1장관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다.

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장서윤 기자

민주당서 나오는 홍준표 중용설, 본인은 “정계 은퇴했는데…”

6·3 대선 인사이트

이재명, 홍준표와 최소 두차례 통화
‘홍과 인연’ 김민석·이언주 물밑 접촉
일각 “이, 집권 후 연합포석” 관측도
홍측 “정치는 생물, 변화배제못해”



정치권의 홍준표(사진) 전 대구시장 정탈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탈락 직후 탈당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며 미국 하와이로 떠났지만, 외려 몸값이 오르는 형국이다. 특히 정치적 대척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란 제목의 글에서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믿지 않은 분”이라며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썼다.

10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원군을 찾아선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며 “그 속에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말도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

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가 홍 전 시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직후 캠프 사무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모인 핵심 측근 8명에게 “여기 있는 사람 전화만 받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경선 경쟁자들의 연락을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하루 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통화가 성사됐는데, 그 직후 김 후보 측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홍 전 시장이 즉각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경선 탈락 이후 홍 전 시장과 이 후보의 통화는 최소 두 차례였다고 한다. 처음 걸려온 전화는 안 받았는데, 얼마쯤 후 이 후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성사됐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김민석·이언주 의원도 홍 전 시장과 물밑에서 접촉했

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홍 전 시장과 함께 국회에 입성한 김민석 의원은 탄핵 정국 이전 대구시정을 찾은 등 인연이 적지 않고, 이언주 의원 역시 3년 전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의 이례적 구애엔 다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선 패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친윤계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다. 이번 대선을 좌우 대결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구도임을 각인시킬 수 있어서다.

홍 전 시장이 그간 민주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종종 발신했다는 점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러브콜이 집

권 이후를 내다본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친명계 중진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합리적 보수였던 김종필·박태준이 외환위기(IMF) 때 김대중의 손을 잡고 정권을 교체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홍 전 시장의 의사다. 그는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아들이 것’이나 ‘중양일보 질문에 “정계 은퇴했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후보와 막걸리 회동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6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과 가까운 인사는 사건을 전제로 “정계 은퇴 반복에 대한 부담, 그간 몸담았던 보수 진영에 대한 의리가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란 만큼 상황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틴미들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상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집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맥클린 콘도 \$485,000 방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방 2, 화 2, 1335sqft
2. 챌들리 하이 상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맥클린 하이,릭서리 상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디자인,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
3. 챌들리 하이 상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8. 맥클린 하이 상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챌들리 새타운 펜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4. 센터빌 상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홈,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	9.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멀리서 공항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펜트 \$3,300/m, 1300sqft, 29/66, 7-11월
5. 센터빌 상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풀백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게인스빌 골프 상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상글	8277 ROXBOROUGH LOOP, GAINESVILLE, VA 20155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맥리오, 스크린백, 게인즈 오픈 매인캐슬 1층, 방 2, 풀백스 2.5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Y 15th - MAY 22nd, 2025

깨끗하게 손질하고 먹기 좋게 썰은
—해푸름—



냉동 
절단낙지
오동통
세일!

HAEPUREUM FROZEN
SLICED SMALL OCTOPUS

LIMIT 2 PK

\$11.99

\$6.99
1LB

편집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5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rlottesville, VA
13800 Metrocenter Dr.
Charlottesville, VA 20161

Annandale, VA
53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900 Fairview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nderson, VA
4900 Eden Street
Henderson, VA 20170

Ellicott City, MD
66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8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ale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비전 사라진 유세장 네거티브가 판친다

이재명, 논란 부를까 ‘부자 몸조심’
김문수, 늦게 참전해 공약준비 부족
“비방 아닌 미래비전 설계 집중해야”

“형수를 보통 욕하는 게 아닌 사람, 여러분이 확 찢어버려야겠지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 14일 경남 밀양 유세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후보도 비슷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에 어영부영 동조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13일 울산)이라고 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를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버지”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선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14일 창원)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나이가 74세인데 뭘 성장시키냐”고 김 후보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다. 비방전은 매 선거마다 나타났지만 이번엔 그 배경이 조금 다르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각 당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파동으로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탓에 준비 부족으로 ‘반(反)이재명 정세’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책 공약 준비 등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슬로건도 선거운동 첫날에야 공개했고, 제대로 된 유세차와 이름·기호가 적힌 선거운동 복도 없이 유세를 시작했다.

선대위도 11일 꾸러졌다. 김 후보가 13일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유세가 열린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 모인 지지자들이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김 후보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4일 발표한 2032년 달 탐사·2045년 화성 착륙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선대위 핵심 인사 간 갈등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박대충 총괄지원본부장과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최근 선거 전략, 메시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내부 알력 다툼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선대위가 급조되면서 중심을 잡고 갈등을 조율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우위인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지율을 깎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반발을 불러올 만한 정책은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리스크를 줄이자는 ‘부자 몸조심’ 전략이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 12일 발표한 10

대 정책 공약은 과거 대선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일께 발표할 공약집에도 수치 등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선대위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한 의원은 “수치를 제시하면 집권 이후에 부담이 되니 큰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했다.

폭발력이 있는 세제 개편도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또는 ‘등록동거혼’을 저출산 공약으로 검토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재욱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10대 정책 공약을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단기전이라 하더라도 정적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정당의 실력에 대해선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성민·김규태·윤지원 기자

당신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대선 2025 후보 심층분석 공약 비교 대선 뉴스 여론조사 재선 선거 FAQ 정치성향테스트

중앙일보 모바일 새 서비스
대선 D-19 | 중앙일보 대선 특집 페이지 오픈
<https://www.joongang.co.kr/election2025>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중앙일보 앱 '대선 2025'로 연결됩니다.



중앙일보가 6월 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선 특집 페이지(<https://www.joongang.co.kr/election2025>)를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을 돕고 있는 측근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집 페이지 상단의 **‘후보 심층분석’**에서 궁금한 후보를 클릭하면 해당 후보의 ▶인생·정치 스토리 ▶상세 프로필 ▶주변 인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약 비교’에선 세 명의 후보가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명 중 비교하고 싶은 두 명을 선택하면 두 후보의 입장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주요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유권자가 궁금해 할 내용은 **‘대선 FAQ’**로 정리했습니다.

‘대선 뉴스’에는 대선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다시려면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s://www.joongang.co.kr>)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애플 계정(ID)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 계정을 통한 간편 가입도 가능합니다. **‘정치성향 테스트’**에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한 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 대선 주요 일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20~25일	재외투표(오전 8시~오후 5시)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25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	6월 3일	선거일(오전 6시~오후 8시)	
26~29일	선상투표	4일	21대 대통령 취임	

의리 김철근, 빵집서 만난 천하람 이준석 떠받치는 ‘원조 이준석계’

김, 이준석 당 쫓겨날때도 곁 지켜
천, 이준석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개성이

강한 ‘독고다이’ 정치인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원조 이준석계의 지원 없이는 지금의 이준석도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의 인기 못지않게 함께 풍찬노숙한 원년

멤버들의 도움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표적 원년 멤버다. 바른미래당에서 인연을 맺은 그는 2021년 5월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이 후보가 “형님 선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자 흔쾌히 “도와줄게요”라고 답하며 한배를 탔다.

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

으키며 대표로 선출되자 김 총장은 대표 정부실장으로 중용돼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다. 이 후보가 성 접대 의혹 등으로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쫓겨났을 때도 함께 고초를 겪으며 이 후보 곁을 지켰다.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천하람 원내대표도 원조 이준석계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1년 말 전남 순천의 한 빵집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이 후보가 참행 도중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 원내대표를 만났고,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2023년 말 이 후보는 천 원내대표에게 “개혁신당에서 잠수함으로 치면 CO(합장)는 내가, XO(부합장)는 네가 맡아 달라”고 요청하며 함께 개혁신당을 차렸다.

손국희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헤반 1주년 기념 이벤트

정통 한식 구이 전문 헤반이 1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고객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품 추첨 당첨자 발표

- 1등 임문빈 (1명)
- 2등 Sonny Kohli 1명)
- 3등 Kim, Karen & 김성진 (2명)
- 4등 강명원, 임효석, Frank Enko, 이상우, 석종명 (5명)
- 5등 박춘봉, 박영자, Diana, Tok Kim, Cece, Eun Kim, Phiney Wong, 윤, 나리, 이두호 (10명)



* 응모자 분들이 적어주신 대로 성함을 기재했습니다.

경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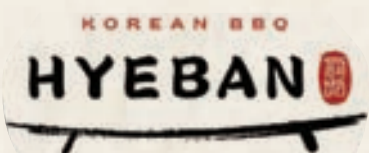
1등
\$3,000
1명

2등
\$1,000
1명

3등
\$500 2명
기프트카드

4등
\$200 5명
기프트카드

5등
\$100 10명
기프트카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금~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크 서비스 해드립니다.

연금개혁 내세우지만... 큰 그림 안 보인 이, 청년층에 쏠린 김

〈이재명〉

〈김문수〉

6·3 대선공약 검증

21대 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3월 보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에 성공했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공약에 담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 안심 2차 개혁’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를 내세웠다. 김문수·이준석 후보 공약은 구조개혁 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삭감 완화, 소득 있는 연금수급자 삭감 완화 등 세부 정책을 집중한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속 추진”이라고 원론적 수준의 연금에 그쳤다. 2022년 대선과 비슷한 기조다. 이 후보는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연계해 ‘기초·국민·퇴직연금’의 다층체계 구축이라는 구조개혁 방침을 확대 공약집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종전부터 관심을 표해 온 세부

과제에 집중했다. 월 309만원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최대 절반 깎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 명이 1인당 월평균 약 19만원 삭감된다. 고령자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 복무기간의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얹어주는데 이를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공약은 이견이 그리 크지 않다.

기초연금 부부 삭감 완화는 좀 따져 봐야 한다. 현재 부부가 받으면 20% 깎는데, 이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것이다. 1월 기준 681만 명 수급자 중 256만 명(37.6%)이 감액된다. 이걸 없애면 연 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부 삭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도 2인 가구 최고액(125만8451원)이 1인 가구(76만5444원)의 두 배가 아니라 82%다. 부부 생활비가 두 배 든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한다. 세금으로 하는 나라는 대체로 감액한다.

보수개혁 이은 세부정책 낸 이재명 부부 기초연금 삭감 완화 등 도입 “수급자 37%가 대상, 2.1조 있어야”

‘청년안심 연금개혁’ 미는 김문수 ‘인구수 따라 감액’ 자동조정 도입 “초저출산 영향, 인하폭 너무 클 것”

신·구 연금 분리 내세운 이준석 연금부채 세금으로 갚고, 새로 시작 “빚만 2231조원, 진행 경비 부담 커”

영국·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는 우리보다 더 많이(23.94~34.5%) 깎고,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6.9~10.7%)는 적게 깎는다. 보험료를 내는 일본은 감액이 없다.

18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공약도 논란이다. 이렇게 내주면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길이 열린다. 또 장애·유족연금 대상이 된

다.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연금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면서 좌초됐다. 오건호 위원장은 “연금이란 게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를 활용한 편법이다. 제대로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성실 납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 없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안심 2차 개혁’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 공약은 3월 보수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편향된 전제를 깔고 있다. 올린 보험료가 젊은 세대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올린 소득대체율은 유리하게 작용한다. 출산·군 크레디트를 확대한 점도 청년에게 유리하다. 다만 김 후보가 ‘청년 안심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듯하다. 이를 위한 계

자동조정장치(인구·수명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감액) 도입 공약이다. 기금 고갈 시기를 3~14년 더 늦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시행한다. 그래도 반대가 만만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주는데 자동장치로 연금액을 깎게 되면 인하폭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연금이 안정된 선진국과 액수가 많지 않은 한국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는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안이다. 개혁 시점 이전의 문제투성이를 떼내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자는 것인데 장벽이 만만찮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2231조원, KDI는 609조원으로 추산)를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 신연금의 보험료를 15.5%로 올려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시행,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해 국고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성석 복지전문기자, 이예스터 기자

이재명

기호 1

민주당

연금 개혁

지속 추진

소득보유자 연금 삭감 개선,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고려할 점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기타 개혁

기초연금 부부삭감 축소

기초수급자도 부부일 경우 18% 적어

18세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줄이자는 반박이란 지적 나와

노인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려할 점 재원 마련, 간병인력 수급 문제 해결해야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금체계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편 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인력난 해결, 재원 마련 필요

차이 임플란트 지원 확대

환정된 간호 재정이어서 우선순위

김문수

기호 2

국민의힘

연금 개혁

청년 안심 2차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청년이 시작부터 논의에 참여

고려할 점 3월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편향된 전제가 깔려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려할 점 재원 마련, 간병인력 수급 문제 해결해야

치매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중증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 무임승차

고령화로 부양부담 감중 대응 필요한 시장 효율에 역행

이준석

기호 4

개혁신당

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 국고 투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령연기·추납·반납 개선(축소)

고려할 점 2231조원(KDI 609조원) 예산 소요, 신연금 보험료 15.5%(소득대체율 40%)로 올려야

공약

10대 공약에 노인공약 없음

이재명 “65세로 정년 연장”... 김문수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이번 대선 유권자 넷 중 한 명(성인 인구 약 24%)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을 겨냥한 복지 공약이 쏟아진다.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인데,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나, 걸림

돌이 적지 않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년 연장보다 임금을 조정해서 재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약했는데, 인력난과 재원 마련이 숙제다. 또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치매 환자의 자산(치매머니)이 154조원에 달

‘노인 생계’ 초점 맞춘 이재명 연금수급 전 3~5년 생계 단절 보완 “기업 부담 늘고, 청년 일자리 줄어”

‘노인 건강’ 포커스 둔 김문수 치매치료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전문인력 부족, 어떻게 풀지 관건”

‘노인공약’ 안 꺼낸 이준석 10대 공약집에 노인 정책 안 담겨 캠프 “현재로선 발표 계획 없다”

하는 상황이라 시급성을 잘 파고든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노인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맞으나 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기준(65세 이상 평생 두 개)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임플란트 건보를 활용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라 이들은 반길 것”이라면서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를 내놨다. 김 후보는 “진단·간병·요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치매 치료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당시 초·경증 환자의 진단·치료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중증 환자 돌봄은 거의 손대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예스터·성지원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취업 비자 (H1-B)

◆ 종교 비자 (R1)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투자/교역 비자 (E1/E2)

◆ 학생 비자 (F1)

◆ 주재원 비자 (L1)

◆ 시민권 신청 (N-400)

◆ 가족 초청 이민

◆ 결혼 이민

◆ 추방유예 (DACA)

◆ 사면준비

◆ 이민국 인터뷰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 건너편)



(品格)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품격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1일까지

저도 우메켄을
받고 싶어요

감사한다면, 사랑한다면
역시 우메켄!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98 또는 \$165 제품 구매 시

\$98 이상
제품 구입 1개당
선물 증정



**씨(C)
밸런스
\$39**

OR



**노니
매실엑기스
\$69**

\$165 이상
제품 구입 1개당
선물 증정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세트 10% 할인 + 선물 증정

NEW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NEW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399~~ ▶ **\$359**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FREE
GIFT

**L-칼슘
(\$69)**

OR



FREE
GIFT

**리포포-C
(\$68)**

OR



FREE
GIFT

**다마스크 로즈
핸드 크림 2개
(\$30)**

888-941-3311 umeken.com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이재명 방탄법’ 통과시킨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도 회부

〈법사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뻔 선거법 본회의 통과 땀 그대로 소송 종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렸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향후 파기한 송심에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재판소원의 경우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현재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역할을 부여한 헌법과 배치되고 ▶대법관 증원은 많은 수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정치적 논쟁이 반복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기간 사법부 압박을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정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 don’t agree with them(나는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법관이 불참한 가운데 2시간 여만에 끝났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읽고 있다.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부만 모여 진행됐다. 질의는 유일하게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서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제기한 ‘파기환송 모의설’에서 ‘S변호사’라고 지목됐던 당사자다.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원희룡 전 의원 등 사이에서 모종의 가교 역할을 해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주장이다.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고, 한 전 총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으며, 조 대법원장과는

경복고·서울대 동문이라는 게 음모론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는 맞지만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서 변호사가 ‘금호법학회’라는 모임의 총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호법학회가 서울대·경복고 사람들이 만난 곳인데 조 대법원장도 금호법학회 회원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회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재반박을 하지 못했다.

불뚝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도 뒤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룰살롱에서 술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다.

하준호 기자

‘법원 난동’ 2명 모두 징역형…재판부 “남은 인생, 본인답게 살길”

각각 1년6개월·1년 실형 선고 혐의 인정, 수차례 반성문 써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설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 김씨는 당시 법원 외벽을 부수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몸으로 밀쳐 폭

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와 부서진 타일 조각으로 법원 내부를 망가뜨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기소됐지만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와 소씨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율 기자

평발에 도수치료, 비만엔 체외충격파…선 넘는 ‘의료쇼핑’

실손 가입자, 외래·입원 더 잦아 연간 최소 12.9조 추가의료비 유발 건보 부담분도 최소 3.8조 늘어나

여덟 살 A양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증세가 이어지자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평발’ 진단을 받았다. 운동·깁창 같은 보조 치료로 충분했지만, 의사는 “성장기 근력 강화”를 강조하며 비급여인 전신형 도수치료를 23차례 진행했다.

서울 B의원은 홈페이지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발기부전 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체외충격파와 발기부전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에 청구된 진단명은 전립

샘 염증, 골반 통증이었다. 실손 적용 가능한 치료로 둔갑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보험 빼먹기’에 실손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가입에 따른 과잉의료 행태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최대 11조원의 건보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 과소비→의료비 증가→건보 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14일 건강·실손보험 이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은 꾸준히 성장해 계약 건수만 3596만 건(지난해 말)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8~2022년 실손 청구(3억1300만 건)

와 건보 청구(4억7600만 건)를 연계·분석해 실손 이용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실손 가입자-실손 비가입자, 실손 이용자(가입 및 청구)-실손 비가입자, 실손 이용자-나머지 그룹 등 3개 유형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실손 가입자는 모든 유형에서 비가입자보다 외래·입원 등 의료 이용이 더 많았다.

이는 건보 재정에 독이 됐다. 실손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2022년에만 총진료비가 최소 12조9400억원에서 최대 23조28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건보 재정 부담)도 3조8300억~10조9200억원 불었다.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다른 실손 가입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적용되는 건보까

지만 써도 될 돈이 늘어났단 얘기다.

특히 실손이 주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보 재정을 크게 갉아먹었다. 2022년 실손 이용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했더니 물리치료 등 상위 9개 비급여에서 진료비 3조5201억원이 추가로 나왔다. 그중 진찰·입원료 등 건보 부담분도 7210억원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리치료의 이용률은 실손 이용자가 각각 1.5배(외래), 3~4배(입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6181억원의 추가 건보 지출이 이뤄졌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는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성장·임시·직장 생활·출산 전후’ 등 생애주기별 패키지로 허위·과잉 진료에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에겐 성장 촉진과 체형 교정, 임신·출산 여성에겐 부종 예방과 자세 교정 등의 도수치료 마케팅이 집중된다.

비만 치료나 남녀 질환 성형술이 물리치료로 둔갑한다. 29세 여성 C씨는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비만 치료를 내세운 서울 모 의원에 갔다. 상담실장은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200만원 대 비만 패키지 등을 안내했다. 진단서엔 실손 청구 가능한 ‘두통’으로 기재했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 개혁 계획을 내놴다. 하지만 실손을 자양분 삼아 건보까지 위협하는 과잉 의료를 잡으려면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급여·비급여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를 강하게 규제하고, 비급여 가격·횟수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박태인 기자

It's Okay,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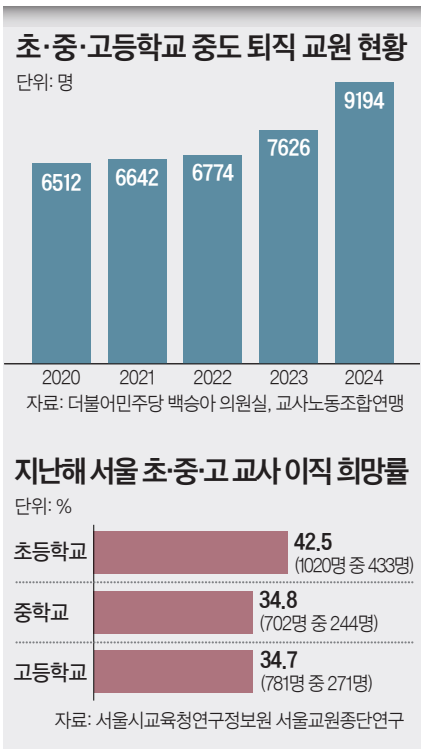
“담임 SKY 아닌데, 우리 애 SKY 가겠나” 학부모 말에 좌절

〈서울·고려·연세대〉



오늘 스승의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경 사리진 교실, 선생님여 떠난다
2020년 6512명 작년 9194명 사직
정년 전 퇴직한 교원 사상 최고치
증권사간 전직 교사는 연봉 두 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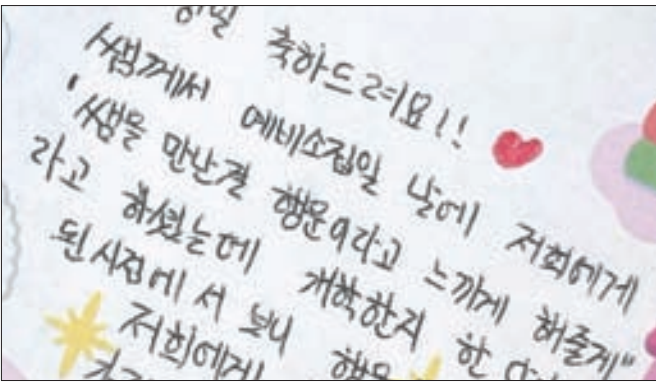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가르쳤던 한상민(28)씨는 지난해 교편을 내려놓고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SKY(서울·고려·연세대)에 보낼 건데 담임이 SKY 출신이 아니라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학생들로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신체 특징을 갖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한씨는 “당시 서이초 교사가 목숨을 끊는 사건을 보고 더 버틸 자신이 없어 법학적성시험(LTEET)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로스쿨 면접에선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분쟁 해결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 근처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았지만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정년 전에 퇴직한 교원은 총 3만6748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사가 1만5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학교사 1만2352명, 고등학교사 8853명이 뒤를 이었다. 2020년 6512명부터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919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3년간 근무한 오모(27)씨는 지난해 감정평가사로 전직했다. 초임 때 담임을 맡았다가 회의감을 느꼈던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왜 다른 아이만 잘 해주고 우리 애는 무시하냐”는 학부모를 항의만 받았다. 이후 담임은 못하겠다고 피했었는데 교장이 다시 “6학년 담임을 맡아 달라”고 하자 지난해 3월 사직서를 냈다. 오씨는 앞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터여서 지난해 하반기에 한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했다. 오씨는 “직업 안정성을 기대하며 교대 4년, 교직 생활 3년



보건교사 최모씨가 담임을 맡은 제자에게 받은 생일 축하편지(왼쪽). 경기도 한 고등학교 급훈에 ‘오늘은 사람이 되었나요?’라고 적혀있다. [사진 독자]

을 거쳤지만 개인적인 발전 없이 일상만 반복됐다”며 “일은 더 어려워졌지만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직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이 수백여 개 올라와 있었다. “초등교사 10년 차인데 현실적으로 이직 가능한가”라거나 “만족하려 노력해 봤지만 이 직업의 장점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등의 문의였다. 해당 게시글엔 개발자, 자영업, 공기업 등을 추천하는 댓글이 달렸다.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은 졸업 후 교직 이외의 진로를 묻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교에서 역사교사로 4년간 일하다 2년 전 증권사에 입사한 김지연(34)씨는 전직을 결심한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그는 “교사 때는 행정 업무와 수업 준비로 거의 매일 야근했다”며 “초봉이 연 3000만~4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대로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겠다 싶었다. 증권사로 옮긴 뒤에는 연봉이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했다.

중도 퇴직이나 휴직, 담임 기피 교사가 늘면서 양호선생님인 보건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생겼다. 수도권 한 중학교 3년 차 보건교사인 최모(33)씨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 ‘담임할 사람이 없다’는 교장의 수차례 설득을 받고 올해 담임을 맡게 됐다. 최씨는 “좋

은 교사가 되려면 한 번쯤 담임도 해봐야겠다 싶어 수락했는데, 생활기록부 쓰는 일도 낯설고 학부모도 나를 못 믿는 눈치라 전보다 2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람에 견딘다”고 했다.

이직을 원하는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이 중 젊은 교사가 많은 점이 최근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서울시 초·중·고 교사 2503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초등교사의 42.5%가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답해 중등학교사(34.8%), 고등학교사(34.7%)보다 이직 희망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차별로 4년 차(58%), 8년 차(62%), 13년 차(60.8%)가 절반 넘게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의 ‘전직 러시’ 현상은 처우 문제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에 의한 괴롭힘, 교육 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이 중 3925건이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 등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26)씨는 “교원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잠시 위(Wee)

클래스(상담실)에 데려가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침해 때 교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적용을 배제하고,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3% 적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열이 강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치, 개별 학부모 민원 등 스트레스는 극한 직업인데 처우는 아박한 게 현실”이라며 “처우 개선 없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교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아미·이찬규·김창용 기자

정부·전공의 한 테이블 앉았다...강경과 박단도 참석

〈대전협 비대위원장〉

수련환경 개선 첫 자문회의 열여
“독립 평가기관 필요” 의견 모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전공의 등이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공식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내 강경파로 꼽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13일) 대전협, 대한의학회, 복지

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 등 주요 전문학회, 한국보건의사회원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부, 당사자인 전공의, 수련 교육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수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을 들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위원장과 대전협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선 걸 두고 의



료계에선 “강경 노선을 유지해온 대전협이 투쟁 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는 향후 회의 방식·성격 등을 논의하는 ‘킵 오프’ 성격이었다. 참석했던 한 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른 학회 관계자는 “현 수평위 체계만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이 어렵고, 독립된 수련 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수련환경 개선은 대전협이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30

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회원들에게 “현재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선을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향후 정부와 대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하나씩 저희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려면 이런 이야기들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채해선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우리말 바꾸기

‘눈곱’과 ‘배꼽’의 사연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데 현대인의 눈은 쉴 틈이 없다. 이상이 생기면 눈에서 나오는 액이 달라진다.

“노란 눈썹이 끼었어요” “눈썹이 많아졌어요”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배꼽 때문일까? ‘눈썹’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른 표기법은 ‘눈썹’이다.

발음은 [눈곱]이지만 ‘눈곱’으로 써야 한다. ‘배꼽’은 [배꼽]으로 읽고 소리대로 적는다. 둘 다 뒷말이 [곱]으로 소리 나는데 왜 표기법이 다른 걸까? 된소리 규정을 이해하면 된다. 맞춤법은 ‘(한 형태소로 이뤄진)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땀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 생긴 자
리를 뜻하는 ‘배꼽’은 둘로 쪼갤 수 없는 한 단
어다. ‘배+굽’으로 볼 근거가 없다. ‘굽’은 진득
진득한 액이나 그것이 말라붙은 물질을 가리
킨다. 배에 끈 굽이 아니란 얘기다.

‘눈곱’은 다르다. 눈에 낀 곱을 말한다. ‘눈+곱’으로 이뤄진 합성어다. 합성어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므로 그 원형을 살려 적어야 한다. 뒷말이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눈] 곱으로 발음돼도 [눈곱]으로 써야 하는 이유다. ‘등살’과 ‘등쌀’도 마찬가지다. 등에 있는 근육을 이룰 때는 [등쌀]로 소리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등살(등+살)’로 적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진정으로 중산층을 살리려면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이는 단순한 생활비 상승을 넘어 중산층의 붕괴를 상징한다. 중산층은 소비경제의 엔진이자, 사회적 계층 이동의 완충지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다. 중산층이 견고해야 사회경제적 안정이 가능하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소비 기반 경제의 위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은 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그의 경고대로 중산층의 몰락은 내수 시장의 축소와 소비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선 집집마다 줄이고, 아낀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가장 손쉽고 그럴 듯해보이는 게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돈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에 동조한다. 실제 가주 하원은 주거비, 육아비, 식비, 교통비를 다루는 4개의 특위를

설치했다. 재정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에게 육아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의의 정부가 가장 잘 하는 일은 납세자 돈 더 걷어 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해볼 게 있다. 중산층을 위대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른 데엔혹시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 없는지 말이다. 가족은 타주에 비해 세금도 무겁고, 규제도 강하다. 렌트비 오르면 못 올리게 누르고, 서민 생활이 어렵다 하면 최저임금 올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인증 규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최종 비용에 얹혀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 수는 없는지,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원시켜줄 방법은 없는지 말이다. 그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납세자 돈을 쉽게 뜯어가는 일만 되풀이할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무작정 재정을 또 투입해 뭘가 해보려고 한다면,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또 거창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간, 몇 년 뒤 ‘연봉 20만 달러 서민’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이아침에

시간의 혼

정명숙
시인

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간의 본질은 전진할 뿐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일주일 한 달은 빨리 지나간다. 행복한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고통의 시간은 더디게 간다. 이는 시간을 주관적 관점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잊고 살지만 우리 손자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볼 때 문득 자신의 나이를 깨닫게 된다. 시간은 아이를 어른이 되게 하고, 꽃이 피고 지게 하고, 포도를 발효시켜 멋진 포도주를 만들기도 한다. 또 시간은 바위를 부수 모래를 만들기도 하고 바다를 사막이 되게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정

한 속도로 나아간다.

“나의 육체적 삶은 시간이 준 놀라운 선물이다. 시간은 그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선물을 회수해 간다.” 『Unlocking the secrets of time』 by Christopher Dewdney. 이 얼마나 시간에 대한 적절한 묘사인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시간 속을 지나고 있는 시간 여행자들이다. 시간은 사물을 부패시키고 생명체를 변형시킨다. 시간은 먼지를 모으고 거미줄을 친다. 시간은 얼굴에 주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중후한 멋과 품위를 선물하기도 한다.

그동안 시간은 2차원의 세계에서 직진만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시간에도 깊이가 있고 혼이 있다는 깨달음이 온다.

시간은 물의 속성을 닮아 유동성이 있다. 물이 담긴 용기에 따라 모습이 바뀌듯 시간도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빚는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은 오직 그 시간의 주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빛나는 시간을 위해 우리 모두 족쇄 하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29> 대기업 정책

투자·일자리 줄어들자, 재벌개혁 결국 꼬리 내렸다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한 주식을 정부가 사들여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

초선 의원 노무현이 첫 대정부질문(1988년)에서 한 말이다. 무시무시했다. 5공 청문회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재벌 회장들을 몰아세우면서 일약 스타가 된 그다. 드디어 대통령까지 됐으니, 재벌들은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재벌 ‘해체’는 ‘개혁’으로 바뀌었다. 당연한 변화였으나, 재벌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집권 초기의 대통령은 여전히 노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삼성 출신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재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 부회장을 맡아 재계 대변인 역할을 했던 현명관은 “참여정부의 재벌 정책은 처음부터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회고한다.

초기 재벌정책의 투톱은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와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였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라는 로드맵도 만들었다.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 중심 문어발식 경영 구조를 손보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앞세웠다. 제도적으로는 전일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출총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집단 소송제 도입, 지주회사 전환 등을 밀어붙였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업포도 대단했다. 이정우는 인수위 시절에 대기업의 컨트롤 타워인 구조조정본부나 비서실의 해체를 거론했다. 총수의 전횡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말이 권고이지 지시요 압박이었다. 강철규 위원장은 5대 그룹 총수를 만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업종별로 소그룹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 이사회에 노조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재벌들은 전전긍긍했다. 그룹이 쪼개지고 경영권이 흔들리는 판에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겠는가. 실제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 감소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듬해 3.8%로 회복되긴 했지만, 전년 대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참여정부 초반의 설비 투자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2003년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맨 왼쪽)과 손길승 전경련 회장(맨 오른쪽)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재벌개혁의 결기는 여기까지였다. 문제는 경기가였다. 취임 첫해부터 신용카드 사태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벌과 대책점에 선 노조의 과도한 분규와 요구 역시 노무현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첫째 ‘고용 없는 성장’을 겪고 나서는 일자리와 직결된 대기업의 투자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윤창민 대기업-노취임 첫해 설비투자 감소

납작 앞드렸던 재계도 반격에 나섰다. 전경련이 앞장서서 출총제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주사 전환은 LG나 SK 등이 성의를 보였지만, 삼성·현대 등 다른 재벌들은 이해관계가 모두 달랐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나서서 지배구조를 통일시키려는 게 애당초 무리였다. 특히 출총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정부 내 개혁파들의 공방이 뜨거웠다. 재벌개혁 로드맵의 입법을 앞둔 2004년에 전경련은 대기업 회원사 현장 조사를 거쳐 출총제 때문에 포기한 투자액이 7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막기 위해 출총제를 강화하려는 참여정부와 투자를 더 하려 해도 출총제가 막고 있다는 재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대통령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재벌정책의 변곡점은 임기 5년의 절반 지점에 이른 2005년 7월의 이른바 ‘금산법(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이었다. 외환위기가 밀

려오던 1997년에 제정된 금산법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제조업 회사를 못하도록 분리하는 법이다. 핵심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24조)이었다. 2004년 금감위의 조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이 법규 위반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생명의 전자 지분은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보유 중이었으며, 에버랜드 지분은 계열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필 당시 금산법에는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이 분명치 않았다.

이정우를 비롯한 개혁파는 법을 고쳐서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온건파는 법 제정 이전의 문제이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소관 부처인 재경부는 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의까지 거쳐 ‘처벌 대신의



2005년 7월 5일 국무회의. 이날 금산법 개정안 의결 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뒷줄 왼쪽 둘째)이 시작했다. [사진 노무현재단]

결론 제한과 일정 기간 내 처분 유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7월 5일 국무회의에 올렸다. 하루 전에 이를 파악한 이정우는 국무회의 당일, 출근길의 노무현에게 달려가 따졌다. 노무현은 화를 냈다. “삼성 잘되는 것을 국민은 좋아합니다.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데 왜 막습니까? 갑자기 국무회의 직전에 이러면 대통령인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이정우,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이날 국무회의는 일단 재경부의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하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법안과 통합해 처리키로 통합하고 넘어갔다. 이정우는 국무회의 이후 사직하고 노무현과 결별하게 된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을 눈치챈 듯, 자신에 대한 신임이 떠났음을 알았다.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금산법 파동을 “노무현에게 가장 실망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금산법 파동 이듬해에 강철규 위원장도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눈에 띄게 약화한다. 열린우리당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하면서 기업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2006년 11월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대규모 기업집단 사책 개선 방안’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출자 한도도 순 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완화했다. 재벌의 변칙적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한 순환출자 금지 장치는 무산됐다. 문제의 금산법 24조는 비슷한 시기에 재경부

원안에 가까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삼성은 생명이나 카드의 계열사 보유 지분을 지킬 수 있었다.

윤증현 “자배구조, 정부가 정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이 크게 선회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의 공방도 치열했다. 특히 2004년 8월 두 번째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취임한 윤증현은 3년 임기 내내 금산분리 완화와 시장 논리를 내세워 개혁파들과 맞섰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강철규 위원장에 맞서서 “어떤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것인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익을 크게 내고 세금 많이 내며 주주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라고 주장했다.

윤증현은 노무현의 방향 선회를 “당연한 변화며,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과거에 어떤 생각이었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해 보니 생각과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선택이 한·미 FTA 추진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좌파, 우파 구분 없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참여정부 국정브리핑팀이 펴낸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자평한다. 집권 5년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이 오히려 커진 결과도 진보 진영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초기에 개혁파들과 맞섰던 현명관은 “참여정부가 반재벌 정책에 매달리다가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렇듯 노무현의 재벌 정책은 출발은 요란했으나 결말은 초라했다. 노무현 스스로는 임기 말에 재벌 정책에 대해 자평한 적이 있다.

“내가 반재벌 정책을 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내 임기 중에 마음먹은 대로 한 것은 집단소송제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는 기업들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작고한 LG 회장 구본무도 생전에 노무현의 말을 인정했다.

“돌이켜 보면 초기에 겁주던 때만 제외하면 노무현 시대가 기업 하기에 가장 좋지 않았나 싶어요. 선거 때 돈 달라는 소리가 없었고, 실제로 별 간섭이 없었으니까요.”

이장구·손병수·고성표·박유미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ere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시 설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민의힘은 어제(14일) 윤종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친윤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조원진 우 리공화당 대표가 “측근들이 그를 설득하고 있다고 들 었다”고 가세하면서 자진 탈당설이 퍼졌다.

그러자 친윤인 윤상현 의원이 SNS에 “윤 전 대통령 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방이 이어졌다. 6·3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 령의 당적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국민의힘이 답답 하기 짝이 없다. 이 미 파면과 기소로 정치적·도덕적 평가 가 사실상 끝난 전 직 대통령의 처리 문제로 분란을 벌이는 당의 모습이 정상인가.

선거를 위해서는 계엄의 강을 과감히 건너야 할 김 문수 후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 지난 12일엔 “계 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더니 어제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 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은 사죄한 다면서도 계엄 사태 장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애매모호 한 자세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견으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에 진즉 당을 떠났어야 옳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절충안으로 자진 탈당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성 지지층을 잃지 않으면서 외연도 넓히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조차 의심 받는 상황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 으로 변호했던 석동현 변호사를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 별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친 한동훈계 등 당내 계엄 반대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 겠는가. 반이재명 ‘빅텐트’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부하 들의 증언을 부인 하는 태도로 일관 했다. 친윤 지도부가 벌인 새벽 후보 교체 소동 끝에 김 후보가 확정되자 SNS에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 과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다수 국민의 부야만 들었다.

오히려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여론 만 커졌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 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책임 을 통감하고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과 결연하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수 지지자들 은 혁신의 목소리에 귀를 열 것이다. 지금처럼 좌고우 면하는 태도론 어렵도 없다.

파면된 지 언제인데 ‘1호 당원’ 자격 그대로 보수 혁신 진정성 보이려면 단호한 결별을

법원을 응징·보복한다는 집착은 참혹한 결과 낼 뿐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설물점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누우치 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판 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대상은 법원이다. 전체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 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 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원이 우리 편에 유리한 판 결을 하면 ‘정의’가 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 농단’이나 ‘사법 쿠데타’로 치부된다. 각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 법원을 응징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기소된 96명 중 두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반성한 피고인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선 보다 엄중한 처 별이 불가피하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 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높아졌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 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등을 근거로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 죄 취지 판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 을 민주당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청문회 를 열어 재판을 검증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다. 법사위는 또 ‘조희대 대법원 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 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대선 이후의 이 후보 재판을 겨냥한 법원 압박 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기 어렵다. 민주 주의를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낼 뿐이다. 다만 사법 부도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 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를 연구 한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카·대니얼 지 블랫)엔 이런 대목이 있다.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 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 리는 것이다.”

그렇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12·3 비상계엄의 모습 아닌가. 한국 의 민주주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그날 국회 로 달려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 일까. 어쩌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의 풍 경이 답을 얻는 데 도움 될지 모르겠다.

시작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 선고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를 파 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음 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5일로 잡았다. 민주당은 “대 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 구, 탄핵소추, 특검 도입을 공개 거론하 며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했다. 그사이 “한 달만 기다려라” “대법원장이 뭐라고” 등 의 막말이 쏟아졌다. 7일 서울고법은 재 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 다. 민주당으로선 일주일 만의 ‘거사’ 성 공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날 민주당은 대 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재 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 정안과 이 후보가 기소된 법 조항을 바 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개정되 면 이 후보는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 게다가 선거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이 후 보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죄를 다들 법 조항의 내용이 사라지 니 재판도, 처벌도 없게 된다. 이 풍경에 대해 민주당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지키

기 위해서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은 지키 지 않아도 되나.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우선 입 법 권력의 사법 통제 시도다. 그 수단으 로 탄핵, 특검이 동원됐다. 탄핵이나 특 검은 죄짓고 법을 위반한 이에 대해 하 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미 지연될 대로 지연된 재판을 빨리 한 게 죄인가. 법관 을 공격해 몰아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전 복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 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그랬고, 페루 의 후지모리가 그랬다. 베네수엘라의 차 베스는 대법원을 해산하고 새 대법원에 측근들을 채웠다. 둘째, 민주당이 만드 는 법안들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 등’(제11조 제1항)과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법이 고쳐지고 재판이 중단되고 소송이 면해진다면 그 게 특수계급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도 넘어 사법부 통제하려는 위험한 생각 삼권분립 허물면 민주주의 위기

민주당의 ‘거사’에서 이 후보도 역할을 했다. 대법원 상고심 당일에 “중요한 것 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판결에 승 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3 차 내란 시도”란 표현도 썼다. 이어 9일 엔 “삼권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 부”라며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 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대법원 압박에 대 한 사실상의 배후 지시나 다름 바 없다. 이라고도 삼권분립을 존중한다고 할 것 인가.

입법·행정·사법 3권이 한 사람에게 집 중되는 ‘삼권귀일(三權歸一)’에 대한 우 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권력이 사법부와 재판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세 상은 우리가 믿어 온 민주주의 사회가 아 니다. 실로 무서운 생각들이 거리낌 없이 전개되고 있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전담제작·배치·인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과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다강양박**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2~8/15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 **다강양박**
\$2190(부타+인사이드), \$2590(부타+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29 8박9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타+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12일 \$3899+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아테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27/2026 10박 11일 \$780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2026 15박16일 \$12500+항공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H마트 주차장 건너편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중앙일보건물2층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드레주르 제과점 옆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민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중국국제항공도움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이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다강양박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2~8/15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 다강양박			
\$2190(부타+인사이드), \$2590(부타+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29	8박9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타+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12일	\$3899+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아테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27/2026	10박 11일	\$780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2026	15박16일	\$1250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09/16~09/26
10박11일 | \$2990+항공

3차 + 오사카 | 3박 4일
9/27~9/30
실속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10/14~10/24
10박11일 | \$2990+항공

4차 + 동경 | 3박 4일
10/25~10/28
실속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10/21~10/31
10박11일 | \$2990+항공

5차 + 일본크루즈 | 11박12일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 부타-
오션뷰 요금문의
발코니 요금문의

10/28~11/07
10박11일 | \$2990+항공

6차 + 동경&오사카 | 5박 6일
11/8~11/13
실속 \$19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서울/전주/담양
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
정동진/강릉
속초/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일반뷰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일반뷰와 \$170차이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뷰와 \$180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뷰와 \$180차이

롯데호텔 제주
일반뷰와 \$250차이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2인이상 출발보장]

내륙 6박 7일 / **일출**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제주도 2박 3일 / **일출**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서남권 3박 4일 / **일출**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 **일출**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동해안 4박 5일 / **화출**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 **일출**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일본 연합투어

동경 3박 4일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18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방콕/파타야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나트랑/달랏	대만	싱가폴	
동남아 연합투어 대한항공 한국경제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경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아시안,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만번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690+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지민영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경주 일요일 마블미운틴, 호이안, 투번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동종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섀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통탄아트 갤러리, 나트랑 대성당 아시안, 세일링 클럽, 훈중 포나카르사원, 아이리조트 스파 달랏 아시안, 달랏 대성당 바오다이 1 궁전, 린푸옥 사원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경주 목요일 국립공작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아시안,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루에양 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850+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월드, 헨더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성국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199

메모리얼 데이 특선

레치워스/나이아가라/왓킨스글렌

2박3일 5/24~5/26 \$699

확정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라츠보그/뉴욕
로맨틱시티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선(오픈)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시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넌까지 일주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레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5/23, 7/4, 8/29)

탑여행사
TOP 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Y 15th - MAY 22nd, 2025



LIMIT
2

Pulmuone
Cold Noodles
풀무원 냉면 4인세트

~~\$13.99~~
\$7.99
EA 49.7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15, 2025 C

냉·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0년 새 주택의 모든 것이 작아졌다

부엌·거실·다이닝룸 합치고
침실·욕실·야외 공간 다 줄어

땅값·주택 건설비용 상승과
가족 줄어든 사회 변화 반영

지난 10년 사이 주택은 거의 모든 것이 작아졌다. 땅값과 집값 상승 외에도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이 줄어드는 사회적 영향도 있다.

새로 짓는 주택은 대지가 작아지면서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외 공간이 압축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신규 단독주택의 평균 대지 면적은 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잔디밭과 넓은 정원도 사라지고 최소한의 조경 또는 돌과 콘크리트를 활용한 외부 공간이 대체했다.

작아진 대지는 관리 부담이 적은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원 꾸기나 야외 활동,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일부 커뮤니티는 개인 마당 공간 부족을 공용 공원이나 녹지로 대체했다. 작은 대지는 개인적인 야외 공간보다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주거 형태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효율을 증시하는 개방형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주방은 거실과 다이닝 공간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주방에 통합되며 정식 다이닝룸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우즈’에 따르면, 식사와 업무,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 공간 선호도가 높다. 거실도 주방에 통합되면서 카펫이나 조명, 가구 배치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정도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최신 주택에서는 확장형 식탁이나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해 조리대와 식사 공간을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계는 실용적이지만, 전통적인 다이닝룸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과 진밀함은 줄어들 수 있다. 고급 주택에서는 다이닝룸을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다이닝룸의 점진적인 소멸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전통적인 주거 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최신 주방 디자인은 슬림한 수납장과 소형 가전제품, 다기능 수납공간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슬라이딩형 팬트리 선반과 하부 수납장, 접이식 테이블과 같은 새로운 설계가 등장해 공간 절약 효과가 뛰어난 반면 요리를 자주 하거나 손님이 많은 가정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작아진 주방은 자제 사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주방과 거실, 다이닝룸을 하나로 통합해 공간 효율을 높인 설계. 카펫이나 조명을 사용해 시각적으로 공간을 구분한다.

도시형 주택이나 미니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최근 주택 설계에서는 거라지 공간도 작아지고 있다. 차 한 대만 세울 정도거나 야외 차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증가와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의 영향으로 카포트(carport)나 공유 주차 공간이 거라지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차고는 수납공간까지 제한해 물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주택 내 충전 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침실은 개수와 크기 모두 줄고 있다. 최근에는 비용 절감과 공간 최적화를 위해 두세 개의 침실을 갖춘 설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이들은 침실이 많은 것보다 넓은 거실이나 공유 공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침실 개수가 적어지면 냉·난방과 전기 비용이 주는 장점도 있다.

침실에 붙은 옷장은 워크인보다 작은

벽장이나 불박이형 옷장이 늘고 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모듈형 선반 시스템이나 침대 밑 수납공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욕실 디자인은 기능성 우선과 세련된 미니멀리즘 스타일이 특징이다. 아예 욕조를 없애고 워크인 샤워부스만 설치하기도 한다. 대신 터치리스 수도꼭지나 자동 조명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중요해지면서 창문의 개수와 크기도 줄고 있다. 집안 전체가 어두운 느낌을 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명이나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환기 효율감을 막기 위해 첨단 환기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연 채광이 줄고, 바깥 풍경과 단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다.

높은 천장은 한때 고급 주택의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난방과 냉방 비용 절감을 위해 천장이 낮아지는 추세다. 답답한 느낌을 보완하기 위해 밝은 색상의 페인트를 사용해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사용된다.

낮은 천장은 실용성을 우선하는 현대 건축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높은 천장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실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베란다와 데크, 패티오 같은 야외 생활 공간은 계속 줄었다. 건축회사들은 실내 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야외 공간은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시 주택에서는 토지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보다는 실내 공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켄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료료: \$250 (교재비: \$100) **실적이 보장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88기 4월 15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한 오시면 100% 합격보장!!

SOLD 3/15 오후 1시~4시 26977 Crusher Dr. Chantilly, VA 20152 \$1,500,000 6600 sqft의 고급집, 모델홈, 짐 펜트로 아주 넓은 하우스, 모델홈보다 더 모델홈 같은 집	1 \$770,000 센터빌 싱글홈 방3,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SOLD 3/15 오후 10시~12시 7703 Lafayette Forest Dr. #22, Annandale, VA 22003 \$369,900 애난데일에 있는 고급 콘도. 방2, 화장실2 집 전체 완전히 다 새것으로 수리	1 \$64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1 좋은 환경에 있는 고급 콘도. 메트로 근처		
2 \$875,000 센터빌 싱글홈 방4,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바닥, 벽돌 집	3 \$1,00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5, 화장실 3+1, 차고 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4 \$1,200,000 비엔나 타운홈 방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벽돌집, 5년된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집	메릴랜드 1 \$720,000 저먼타운 싱글홈 방 6, 화장실 4, 차고 2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부엌, 넓고 고급스러운 집, 좋은 가격	2 \$950,000 클락스버그 싱글홈 방4, 화장실 4+1, 차고 2 18년된 벽돌집, 새집같이 잘 가꾸어진 집	DC 2 \$1,10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2, 화장실 2, 차고 1 전통적인 양식의 고급 콘도, 고급 동네에 위치

맛벌이도 역부족 ... 주택 마련 소득 기준 급등

LA지역 권장 연소득 31만5892불 ... 6년새 86% 뛰어
치솟은 집값·모기지 탕 ... 10가구 중 1가구만 여력

LA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이 지난 6년간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2025년 4월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롱비치와 애너하임을 포함한 LA메트로 지역에서 중간 가격인 119만5000달러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은 31만5892달러였다.

이는 2019년 4월 당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했던 소득 대비 무려 86%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 50개 메트로 도시 중 4번째로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 수치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20%의 다운페이먼트, 주택 관련 비용 지출이 소득의 최대 30% 이하여야 한다는 ‘30% 룰’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평균 가정의 주택 구매 능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 전 대비 LA의 중간 집값은 49.7% 올랐으나 높은 모기지 금리 등에 따른 변화가 필요 소득을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국의 중간 주택 가격인 43만1250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연 소득이 약 11만4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19년 4월 대비 70% 가까이 소득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센서스국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가구당 중간 소득은 8만600달러로 당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소득인 11만 달러보다 27% 낮았다.

리얼터닷컴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년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소득 기준도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집값 및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가주에서 주택 구매는 소수만이 실현 가능한 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중개업협회(CAR)가 지난 9일 발표한 ‘1분기 주택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 1분기 84만6830달러로, 매달 5450달러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최소 소득은 연 21만8000달러인 셈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지역에 새로 나온 주택 매물. 박낙희 기자

다만 실제 이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남가주로 좁혀 봤을 땐 LA카운티의 경우,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구는 지난 1분기 전체의 13%로 가주 전체 비율보다 4%포인트 적었다. 전년 동기의 14%와 비교해서도 1%포인트 더 떨어졌다.

오렌지카운티는 LA보다 더 상황이 열악했다. 오직 12%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보다는 1%포인트 늘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또한 12%였으며, 벤투라는 14%, 리버사이드는 20%가 주택을 구매할 여건이 됐다. 남가주에서 주택 구매 가능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샌버나디노

(28%)로 LA의 두 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고정된 소득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임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수요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훈식 기자

말뿐인 렌트비 폭리 단속

주정부 등 ‘강력 처벌’ 엄포
실제 임대인 기소 5건 불과
검찰은 “증거 확보 신고를”

지난 1월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불거진 렌트비 폭리에 대한 가주와 LA 카운티시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비 폭리 임대인을 적발,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는 법집행 기관이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비영리단체 ‘공정경제전략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렌트비 폭리 감시단체 ‘렌트 브리게이드(Rent Brigade)’의 자료를 인용, 펠리셰이즈 및 이튼 산불 관련 렌트비 폭

리 사례가 산불 직후 1343건에서 현재 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급 검찰의 렌트비 폭리 혐의 기소는 5건(LA시 검찰 2건, 가주 검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 경범죄 또는 민사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카운티검찰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은 수십 건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러다 보니 사법 기관이 렌트비 폭리 단속과 처벌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비 폭리 사태가 불거질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지난 3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 1만~5만 달러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렌트비 폭리 현상은 여전히 실정이다. 검찰은 단속을 벌이는 경찰과 소비자보호국 등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2019년 실버레이크에 월 렌트비 2000달러의 집이 지금은 7000달러”라며 “온라인에서 렌트 매물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닫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첼시 커크 공정경제전략행동 정책 국장은 “우리가 확인한 렌트비 폭리 사례가 8000건이 넘는 실정인데 기소가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렌트비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서울 주담대 연체 최대

‘5년 고정금리’ 영끌족

서울 지역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고 연체한 비율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영끌’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35%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월(0.34%) 최고치로 올라선 데 이어 2월 또 상승하면서 기록을 다시 세웠다. 전체 주담대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출의 비율이 연체율로 집계된다.

2022년까지 0.1%대에 머물던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2023년 2월(0.22%) 처음으로 0.2%대를 넘어섰다. 2023년 10월 0.3%를 돌파한 이후 0.3%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고정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를 유지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금리를 재산정한다. 올 들어 2020년 실행된 주담대 금리 재산정이 시작되면서 ‘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집을 사기 위해 6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중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내는 이자와 원금은 237만원에서 294만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금리가 낮았던 때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집을 산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싼 집값으로 인해 대출액이 큰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정진호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GALAXY REALTY

★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요 부동산

주요 부동산	1610 Westmoreland St, McLean, VA	NEW	\$1,999,900	매클린 고등학교 옆, HOA 없음, 홈스테이 하기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침구, 특급 호텔 다용도 주방, 집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NEW
	16309 Sandy Bottom Ct, Woodbridge, VA	COMING SOON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NEW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501,000	복수 오피스 빌딩서 리스텔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섹터, 3주만에 세팅먼트 완료	SELL
	1474 Hampton Hill, McLean, VA	SOLD	\$1.3M	다수의 오피스 빌딩 경쟁시켜서 listing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세팅먼트, 셀라*바이어모두 해피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D	\$1.2M	마켓에 내놓자마자 좋은 오피스 빌딩, 1/21/25 세팅먼트 완료	SELL
10*** Salt Meadow, McLean	SOLD	\$2.73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1/21/25 세팅먼트 완료	BUY	

사업체 매매	델리시(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할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	--------	---

주소	기간	세입자	
페어팩스 지역 북-어름 나을 집 렌트 리스트팅 50여채 있음	4/1~7/31 일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트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초 일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NEW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NEW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월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측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고 득템, 주인님,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로마 손님 많았다고 함, 역시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 후재함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하우로 득템,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내놓지 않고 영상으로 보아주고 계약 완료, 국제/국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상보고 3년 렌트함, 주재원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경제 전반 위축되는 시기… ‘지키는 투자’ 필요

5월 시장 진단

2025년 5월 현재,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 S&P 500과 다우 지수, 러셀 2000 등 주요 지수들이 지난 몇 주간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구조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 중기 하락 국면 내 일시적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직은 더 타당하다.

특히 러셀 2000은 이미 명확한 하락 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더 큰 하락의 서막일 수 있다. S&P와 다우도 4월 중순부터 기술적 조정을 거쳤지만, 전반적 하락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단기 강세와 중장기 하락의 충돌을 겪고 있다.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잠재 성장률보다 최종적 잠재 위험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개인투자자들 지나친 자신감 위험

시장의 흐름과 대중 심리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과열 상태에 가깝다. 4월 초, S&P 500이 하루에 4.8% 급락했음에도 개인들은 하루만에 약 47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하루 최대 유입 규모였다.

또한, 최근 몇 주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지는 국면은 보통 주요 고점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후에는 빠르고 날카로운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

거대 증권사 CEO가 “마진콜 직전 투자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해야 했다”고 밝힌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용은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자산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신호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심화한 시장에서는 ‘잃지 않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지수들 반등 있었지만, 중장기적 하락세
소비자심리지수 급락하고 주택시장 지지부진
개인투자자, 위험 감수하고 주식 순매수 나서
리스크 관리 위해 보수적으로 자산 배분해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채권, 통화 등 주요 자산군 전반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은 4월 말 기준 온스당 3500달러까지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피로감을 보여준다. 특히 은의 후행, 기술적 비확인 시그널, 괴리율(Disparity Index)의 극단적 확장 등은 단기 하락 가능성을 암시한다.

미국 달러 지수는 1월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가 4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인다. 투자심리는 극단적 비관으로 쏠려 있으며 이는 되려 기술적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안전자산 수요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채권 공급 확대, 장기 물가 기대 상승,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의 국내 재정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위험 회피 성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8%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자산 흐름은 단지 기술적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기초 체력 약화일로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은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52로 급락, 이는 지난 45년 동안 단 두 차례(2022년 7-8월)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는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으며 자동차 대출 연체율과 비주택 채무 상환 불이행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시장도 반등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중이다. 기존 주택 판매는 2021년 고점 대비 39%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한 감소 폭이다.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도 장기 고점을 찍은 상태다.

이는 소비 여력의 감소와 함께 경기 하강의 장기 신호로 작용한다. 경제 전반은 이제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

▶단기 흐름의 행방

5월 둘째 주의 주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기술적 지표는 단기적인 전환점을 암시한다.

러셀 2000은 최근 이틀간 꺾 상승이 있었으나, 모멘텀은 약화하고 있고 곧 하락 트렌드가 시작될 수 있다.

S&P 500은 최근 고점(5720.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조 추가 상승했지만, 하락 전환의 초기 구조를 만들고 있다. 5578선이 무너지л 경우 본격적인 하락 전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 가격은 현재 3275달러 부근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다. 이 선이 무너지면 3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지받을 경우 3600달러 이상으로의 반등도 가능한 구조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저점(97.92)에서 반등 중이며 상승세가 지속하면 원자재나 신흥국 자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 관리가 최우선일 때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점과 구조적 변화가 겹쳐 있는 시기다. 주가가 잠시 반등한다고 해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큰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보수적 자산 배분 전략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언제 방향을 바꿀지 예측하는 것보다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잃지 않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조차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자산 배분이나 장기 보유 전략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전술적 대응 능력을 갖춘 전략과 구조화된 리스크 제어 상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술적 주식 포트폴리오, 롤 기반 인덱스 ETF 전략, 원금보장형 지수형 연금이나 조건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자산사 제공 지수형 투자성 연금(RILA) 등을 각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켄 최아피츠 자산관리 대표

주식 빚투까지? 지난달 가계대출 5조 불어나

5대은행 대출증가 7개월새 최고
“증시 저점 매수” 신용대출 1.1조
“성장률 이내 대출증가폭 관리”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가량 불어나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던 여파가 시장을 두고 나타났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말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달 말일(30일) 신용대출 상환 등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하더라도 증가 폭이 5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1월(9000억원), 2월(4조2000억원), 3월(4000억원)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듯했으나 지난달 들어 추세가 바뀌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이 동

시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 다시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건 은행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3253억원으로, 3월 말(738조5511억원)보다 3조7742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9월(5조 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

가 폭을 기록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들어 29일까지 2조7073억원 불어나났다. 이 기간 신용대출은 1조104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2442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우대금리 포함한 최고 금리 기준)로 떨어지자 주식·코인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UNDER CONTRACT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 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애난데일 싱글홈
\$880,000

방3, 화3, 0.46 에이커
굿 로케이션
새지붕, 울수리한 집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바티칸 적자 재정에 기적 같은 개혁 다져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 그가 추진해온 바티칸 은행 개혁이 조명을 받고 있다. 1942년 성직자와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티칸 은행은 비밀주의와 스캔들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동안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가 이뤄지면서 규제 감독도 강화됐다.

공식 명칭이 종교 사업 연구소(Institute for the Works of Religion, IOR)인 바티칸 은행은 2023년 기준 자산 54억 유로(약 61억 달러)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반자본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주요 업적의 하나로 금융 개혁을 꼽는 이들이 많다. 교황은 2013년 즉위와 함께 선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시작한 개혁 노선을 이어받아 바티칸 은행 개혁에 착수했다.

재임 첫해인 2013년부터 바티칸 은행의 연례 보고서 공개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에는 수익과 운영비용, 자산 기부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4년에는 경제 문제에서 성직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프랑스 금융인 장-밥티스트 드 프랑수를 신임 은행장으로 임명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드 프랑수는 인베스코 유럽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바티칸 은행장을 맡아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투명성과 효율을 위해 인베스코, 독일 보험회사 에르고(ERGO) 등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개혁을 이루어 전 세계 신자들이 헌금하는 성 베드로 성금을 온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고 싶어했다. 2015년 이탈리아 투린에서 신자들을 만나는 프란치스코 교황.

복잡·불투명을 투명·청렴·전문성으로 바꿔

선종 직전도 개혁 작업…새 교황 개혁 완수 과제

고급스러운 사도 궁이 아닌 자신의 숙소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의 소박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교황의 사명”이라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자선 활동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과거 계약 초과 지출을 수용했던 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바티칸은 지불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를 마치 대기업 CEO처럼 평가했고 교황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를 마치기도 했다.

바티칸은 KPMG를 통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어니스트앤영(EY)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델로이트와 스펜서 스튜어트를 통해 인재를 채용했다. 교황은 또 ‘경제 사무처’를 신설해 권한을 집중시

켰는데 현재 수장은 MIT 출신으로 교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이 같은 개혁에도 바티칸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국무원 고위 추기경이 부동산 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히며 논란을 일으켰고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수백만 유로가 불법 리베이트와 사적 거래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모두 8명이 수감되고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2021년부터 약 250명의 추기경 급여를 세 차례나 삭감했고 2023년에는 고위직의 주택 보조금도 폐지했다. 지

난해 9월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제로’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교황은 선종 직전까지도 재정 개혁을 놓지 않았다. 피로와 기관지염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지 13일째인 지난 2월 27일에도 바티칸의 만성적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조치는 교황청 행정부인 쿠리아(Curia) 내 고위 인사들의 긴축 반대 요구를 무마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알려졌다.

교황은 초기에 채용 동결을 선언하고 자연 감원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금 문제는 여전히 바티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티칸은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박물관 수익과 기념품 판매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바티칸 시국(City State)’이고 다른 하나는 쿠리아다. 쿠리아는 매년 약 8억~9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의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에 전 세계 신자들이 헌금하는 성 베드로 성금도 이곳의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성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했으나 생전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바티칸이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조직에 투명성과 전문성, 청렴성을 가져오는 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말년에 병상에 누워서도 재정 개혁의 깃발을 놓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자가 이 같은 개혁을 완수하려면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탁월한 전략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안윤희 객원기자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초인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신은 죽었다’ 말하는 건
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도피처 허무는 것

유대교나 기독교는 이분법적인 비교를 잘한다. 선과 악, 신과 악마.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페르시아의 예언자로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은 차라투스트라이다. 니체는 이성적이며, 조화를 추구하는 아폴론적인 쇼펜하우어

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역설적으로 정열적이며, 도취적인 디오니소스적 작품을 통하여 인간을 계몽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신은 죽고, 초인(위버멘쉬)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버멘쉬라는 말은 위버(over)+멘쉬(man)이다. 즉, 사람을 초월한 상태를 말한다. 즉, 주관적인 개인이며 정신적인 귀족이며 정신의 주인인 상태를 말한다. 이 말과 대립하는 게 인간 말종이다. 이런 사람은 노예 의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르는 사람, 즉 경멸

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자기 극복이나 자기 사랑, 자유 정신과 같은 위버멘쉬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위버멘쉬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하며, 타인의 발전을 나의 발전으로 여기는 사람이며,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은 창조적인 힘을 발산하는 것으로 믿는다. 또한 진정한 적을 진정한 벗으로 여겨서 적을 통하여 나도 발전되기 때문에 결국 상생(win-win)으로 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정열적이며, 도취적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의미한다.

니체는 위버멘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헤겔이 말한 변증법적 발전이 아

니라, 인간적인 것의 철저한 몰락을 통한 변신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이성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위버멘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열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 신이나 찾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은 죽었다는 것은 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도피처를 허물고, 좀 더 정직한 자신을 가질 수 있어야 정신적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니체의 주장인 신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며, 이것은 역으로 위대한 위버멘쉬의 탄생을 의미하며, 또한 인간이 노예적 생활을 끝내고, 자기 자기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의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의 의지가 인간의 삶에 상승적인 작용을 한다면 행위자에 따라서 도덕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기심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도덕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 내면 희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세를 살다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감추려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성을 숨기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의지하여 순간순간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신을 찾는 것이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찬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조진욱
드림부동산 부사장

주택 시장 동향

판매 회복세 이어졌지만 여전히 회복력 부족
신규 매물 공급 다소 늘고 가격 완만 상승

최근 가주 주택 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주택 구매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반영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가주부동산협회(CAR)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3월 단독 주택의 에스프로 종료 매매 건수는 계절 조정 연율 기준으로 27만70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수치지만, 전월의 28만4540건 대비 2.3% 감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비록 판매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월간 판매 건수는 지난 30개월 동안 30만 건을 밑돌고 있어 시장의 회복력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부진한 흐름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관세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 변동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구매 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에도 보류 중인 주택 매매 건수는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과 안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3월 가주 주택 중간 가격은 88만4350달러로 2월 대비 6.7%,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1개월 연속 연간 기준 가격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은 예년 평균보다

는 다소 완만하여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분기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 개 주요 지역 모두에서 연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센트럴 코스트 지역은 샌타바버라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두 자릿수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6%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고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계절 흐름에 따라 3월의 주택 재고 지수(Unsold Inventory Index)는 4.0개월에서 3.5개월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판매 속도가 소폭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2.6개월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에 신규 매물 공급이 다소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주 주택 시장은 모기지 금리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C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던 레빈은 “에스프로 개시 판매의 둔화가 봄철 주택 시장의 시작을 느리게 하고 있지만, 재고 증가와 온건한 가격 상승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희망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화, 금리 변동, 소비자 심리 등의 외부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알렉스 신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

온라인 부동산 사기

허위 매물 통한 사기 수법 기승
에이전트 협력해 피해 방지해야

많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터넷 검색이다. 질로우, 레드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매매든 임대든 수많은 매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사진도 잘 정리돼 있고, 가격 비교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손쉽게 매물을 찾는다. 특히 낱가주처럼 집값이 높고 주택이 빨리 팔리는 지역에서는, 좋은 조건

의 매물을 온라인에서 먼저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경쟁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위험도 함께 생기고 있다. 최근 질로우나 레드핀에 올라온 매물 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범이 무단으로 도용한 허위 매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기범들은 실제 부동산 정보에서 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복사한 뒤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지금은 출타 중이라 집을 보여줄 수 없지만, 디파짓만 먼저 보내면 열쇠를 보내 주겠다”라거나 “신청자가 많으니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크레딧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등 너무 많은 이유로 다가온다.

특히 이들은 영어로 전문적인 부동산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와 비슷한 계약서 양식까지 보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쉽게 속을 수 있다. 피해자 중에는 국내에 오래 거주한 한인도 있고, 현지인들도 많다.

문제는 한 번 피해를 보면 돌아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좌로 송금한 돈은 거의 돌려받기 어렵고, 사기범들은 대개 가짜 이메일 주소나 가명, 가상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걸 혼자 확인하고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공인된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해야 한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다. 정식 자격을 갖추고, 매물의 진위를 확인하며, 거래 과정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전문가다.

공인 에이전트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라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매물만을 취급한다. 이 시스템은 허위 매물이 등록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며, 거래 상대방의 자격이나 권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수자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권리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도 빠짐없이 안내해 준다.

간혹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라는 이유로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보다 더 큰 손해를 막는 것이 에이전트의 역할이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생활 터전, 미래의 자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 중요한 순간을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하면 된다.

맨션세 세수입 역대 최고치

첫 시행 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LA시 부동산 양도세인 ‘Measure ULA(맨션세)’가 지난 1월 최고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맨션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541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맨션세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익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시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세수는 총 73건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했으며, 거래당 평균 세금 수입은 약 74만1000달러였다.

이는 맨션세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달로, 비교적 거래 수가 많고 고가의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맨션세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939건의 거래를 통해 약 6억326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는 단독주택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22%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나왔다.

우훈식 기자

노숙자 텐트 철거에 33억불 투입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가주 전 지역의 길거리 노숙자 텐트 철거를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대책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노숙자 텐트 정리와 노숙자 쉼터 및 정부 서비스 연결 지원을 위해 예산 3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는 주정부가 지역 정부에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다.

주지사의 이번 지원안은 길거리나 공공장소의

노숙자 텐트를 각 지역 정부가 철거할 수 있다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탄력을 받아 결정됐다. 뉴섬 주지사는 “여러 지역 정부가 노숙자 텐트 철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원금에 이어 보다 확실히 노숙자 텐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조례는 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노숙 행위와 인도 통행을 막는 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역 정부에게는 텐트 철거 전 노숙자에게 사전 통지 제공, 노숙자에게 쉼터 및 복지 서비스 연결 지원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REALTY11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주택 리노빙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UNDER CONTRACT

Rockville MD

싱글홈 \$759,000 방4, 화3

COMING SOON

Elkridge MD

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

UNDER CONTRACT

Bethesda MD

싱글홈 \$1,295,000 방4, 화2/1

UNDER CONTRACT in 3 days

Nottingham MD

싱글홈 \$449,000 방3, 화2

COMING SOON

Gwynn Oak MD

싱글홈 \$419,000 방4, 화3

COMING SOON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더 CJ컵 우승으로 손 부상 회복을 알린 스코티 셰플러. [로이터·Jim Dedmon-Imagn Images]



마스터스 우승 등 올시즌 상승세를 보이는 로리 매길로이. [로이터·Bill Streicher-Imagn Images]

위리어스·셀틱스 나란히 탈락 위기

NBA 플레이오프 2R

스테픈 커리가 이탈한 골든스테이트 위리어스와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가 나란히 NBA(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 2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다.

골든스테이트는 12일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4-2025 NBA 서부 콘퍼런스 PO(7전 4승제) 2라운드 4차전 홈 경기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110-117로 졌다.

1차전에서 99-88로 웃었던 골든스테이트는 이후 세 경기를 내리 내줘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한 번만 더 패하면 서부 콘퍼런스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하고 시즌을 마친다. 1차전 1쿼터 도중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커리가 이탈한 뒤 골든스테이트는 포워드 지미 버틀러의 활약으로 한 경기는 잡았지만, 전력 차를 체감하며 3연패를 당했다.

미네소타가 1승만 더 추가하면 지난 시즌에 이어 2시즌 연속으로 서부 콘퍼런스 결승 무대를 밟는다.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 보스턴이 안방에서 뉴욕 닉스에 113-121로 져 시리즈 세 번째 패배를 안았다. 접전 끝에 1, 2차전을 모두 내준 보스턴은 3차전을 115-93으로 크게 이기면서 반등하는 듯했으나 4차전 패배로 두 시즌 연속 우승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이정후 첫 4번 타자 출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가 2경기 연속 안타를 터트렸다.

이정후는 12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올 시즌 개막 후 줄곧 3번 타자 자리를 지켰던 이정후는 이날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나섰다.

이정후가 상대한 투수는 애리조나 에이스인 메릴 켈리다. **[연합뉴스]**

셰플러 vs 매길로이, 이제야 진검승부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29·미국)가 지난 4일 끝난 더 CJ컵에서 최종합계 31언더파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대 최저타 타이 기록을 세우자 현장의 PGA 투어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성기 타이거 (우즈) 처럼 경기한다.”

통계로도 그렇다. 올해 셰플러의 스코어 다이어그램은 완벽한 5각형이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세계 2위 로리 매길로이(36·북아일랜드)다. 셰플러는 평균 버디에서, 매길로이는 파3 스코어에서 약간 앞선다. 매길로이도 올해 역대 최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골프에서 가장 완벽한 5각형의 다이어그램을 그린 선수는 2000년 당시의 우즈다. 뉴욕타임스(NYT)가 “신이 내려와 경기했다”고 표현했던 그해 우즈의 평균 타수는 68.17타였다.

올해 셰플러는 68.36타(1위)이고, 매길로이는 68.75타(2위)다. 두 선수 모두 이전에도 68타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68타대를 친 적은 없다. 요컨대 두 선수가 동시에 우즈의 전성기급 활약을 펼친다는 거다.

그 시절 우즈에겐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었다. 올해 셰플러와 매길로이는 용호상박이다. 최동원과 선동열의 전성기 마운드 대결, 로저 페더러와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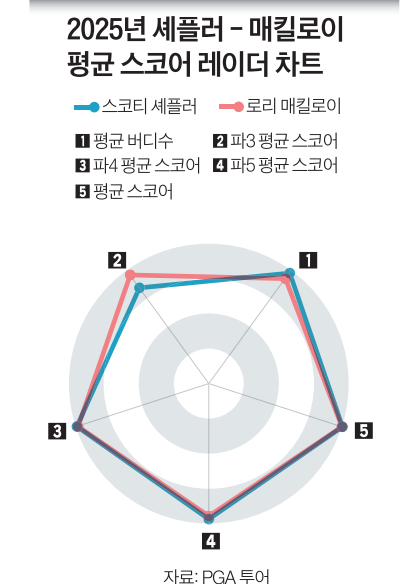
PGA 챔피언십 15일 개막 셰플러, 손 부상 털고 재기 매길로이, 올시즌 상승세 두 선수 강력한 우승 후보

마크 조코비치의 Wimbledon 결승전처럼 말이다.

두 선수는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격돌한다.

셰플러는 시즌 초반 손 수술 탓에 정상적으로 경기하지 못했는데, CJ컵을 계기로 완전히 살아났다. 매길로이는 셰플러가 최고 선수로 부상한 이후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올해는 굼직한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하면서 제2의 전성길로 맞았다.

그래서 PGA 챔피언십이 둘의 첫 진검승부다. 스포츠 베팅업체의 우승 배당률(낮을수록 우승 확률 높음)은 셰플러가 4.5배, 매길로이가 4.8배 정도다. 3위인 브라이슨 디섀보(32·미국)는



10배다. 두 선수와 차이가 크다.

올해 주요 부문에서도 두 선수는 3위와 차이가 큰 1, 2위다. 골프 선수의 기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통계인 스트로크 게인드(SG) 토털에서 셰플러가 2,394로, 2,319인 매길로이에 살짝 앞선다. 3위는 1,670의 콜린 모리카와다.

버디보다 좋은 스코어를 내는 파 브레이크율은 셰플러 26.54%, 매길로이 26.39%다. 셰플러의 보기 회피율 9.57%로 1위다. 매길로이는 12.27%로 6위다. 2000년의 우즈도 9.80%로 셰플러에 뒤진다. 매길로이가 셰플러 기록 중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매길로이는 올해 마스터스 우승으

로 11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짐을 벗었다. 현재 스윙도 가장 좋다. 우즈가 아들 찰리에게 “로리처럼 스윙하라”고 조언했을 정도다. 게다가 이번 대회장인 웨일할로 골프장은 ‘로리 컨트리클럽’으로 불릴 만큼 매길로이에 유리하고 실제로도 잘 쳤다.

14번 참가해 우승 4회를 포함해 톱 10이 10번이다. 한인 선수 마이클 김은 “코스가 길어 드라이버와 롱아이언이 중요하다. 장타자 매길로이에게 딱 맞는 코스”라고 평가했다.

CJ컵 1, 2라운드에서 셰플러와 동반 경기한 김시우는 “현타가 올 정도로 잘 치더라”라고 칭찬했다. 이어 “타이거 전성기에 같이 공을 쳐본 적은 없지만, 더스틴 존슨과 로리 매길로이는 잘 칠 때 동반 경기한 적이 있다. 로리와 셰플러가 톱2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마스터스에서는 관례에 따라 직전 우승자인 셰플러가 매길로이에 그린 재킷을 입혀줬다. 재킷만 입혀주고는 바로 자리를 떠나 뒷말이 나왔다. 셰플러는 “매길로이가 우승 자축하도록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매길로이는 2022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셰플러에 6타 차로 뒤지다가 역전 우승했다.

샬럿=성호준 골프전문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풀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인텔리시스템스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ive (someone) a ring: (누구에게) 전화하다

Jim and Roger are talking at work.

(짐과 로저가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Jim: Have you seen Terry?

짐: 데리 봤어?

Roger: No. Why? Is he late?

로저: 아니. 왜? 아직 안 왔어?

Jim: Yes. It’s not like him to be late.

짐: 응. 지각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Roger: Why don’t you give him a ring?

로저: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

Jim: I did but he doesn’t answer his phone at home

and he doesn’t have a cell phone.

짐: 했지. 근데 집 전화는 안 받고 휴대폰은 아예 없어.

Roger: Maybe he’s stuck in traffic.

로저: 길이 막혀서 그러는 지도 모르지.

Jim: He doesn’t drive. He takes the bus everywhere.

짐: 운전 안 해. 어딜 가든 버스 타고 다니잖아.

Roger: Maybe his bus came late.

로저: 버스가 늦게 왔을 수도 있잖아.

Jim: That could be it. 짐: 그럴 지도 모르겠다.

Roger: He’s sure to be here soon.

로저: 틀림없이 곧 올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It’s not like (someone) to (do something): ~할 사람이 아니다.

“Brian is always late. It’s not like him to be on time

anywhere.” (브라이언은 항상 늦어. 어디서고 제 시간에 올 사람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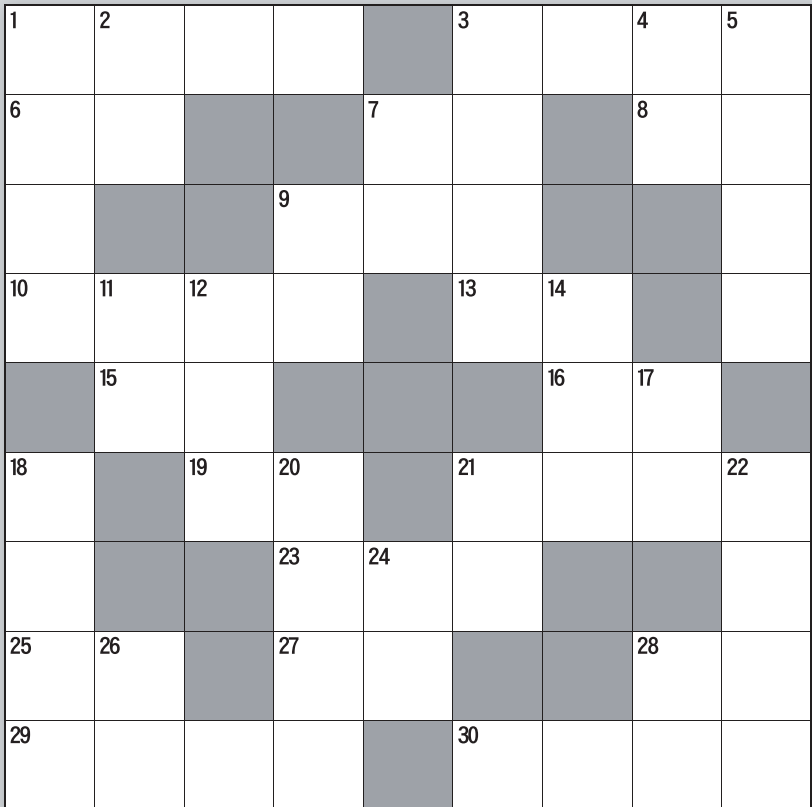
▶ stuck in traffic: 교통 체증에 걸리다.

“I’m late because I was stuck in traffic.”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

▶ (one) is sure to (do something): 꼭 ~할 거야.

“She’s sure to bring chocolate cake to the party. She always does.” (그녀가 틀림없이 파티에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올 거야. 항상 그래.)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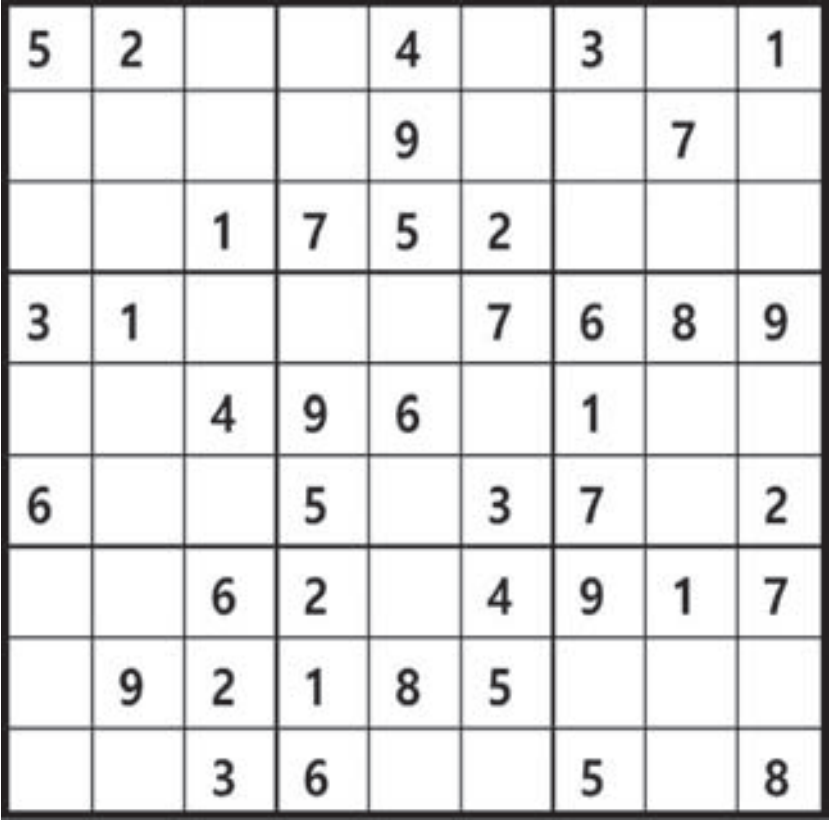
가로열쇠

(1)뼈 없이 좋은 사람. 아주 순하여 남의 비위에 두루 맞는 사람 (3)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 일이나 업무 등 주어진 상황에서 몸을 사림. □지□□ (6)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학교는 우수한 ~를 배출한 명문 사립고이다 (7)쓴 술이 든 잔. 쓰라린 경험. ~를 들다 (8)돌아간 어버이 위로 대대의 어른 (9)넋째 손가락 (10)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13)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15)돈이나 물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책. 외상 ~ (16)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19)끝에서 높은 곳으로 옮김 (21)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 고려 말기의 도응은 조선 건국 후 태조가 죽마고우인 그를 상장군에 봉하였으나 거절하고 ~의 절개를 지켰다 (23)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25)처음에 팔리는 것으로 미루어 예측하는 그날의 장사 운 (27)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차린 상 (28)중식 (29)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뚝하여 뿔내는 기세가 대단함. □□만□ (30)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세로열쇠

(1)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관. 양양벌에서 아두를 갑옷 속에 품은 채 20만 대군 속을 ~ 달렸던 조자룡. □□지□ (2)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쓰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 (3)엷지른 물. 다시 수습하기 곤란한 상황 (4)잔칫집이나 상가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5)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단생각을 하고 있음 (7)아름답게 꾸며 식욕을 돋우려는 목적으로, 음식 위에 뿌리거나 얹는 것 (9)무늬가 없이 전체가 한 가지 빛깔로 됨. 먼 훈방 ~ 원단 (11)지붕의 안쪽, 방의 위쪽 (12)남편이 아내와 함께 동행함 (14)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 (17)꽃, 열매(포도), 눈 따위의 한 덩이 (18)외투용으로 겹에 입는 한복 (20)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름 (21)만지 아니함 (22)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험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 □중□□ (24)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 (26)힘을 들이고 애를 씹 (28)시각 장애인용 문자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료(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5월 Special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를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팔리스2

첫 발을 뗀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B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PHANTOM Medical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건강!
- 퇴행성 관절증 치료를 위한 건강!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선정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 혁신상 4년 연속 수상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봇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봇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봇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폭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Healthcare Robots
FALCON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봇워킹 테크놀로지

~~\$6,999~~ → **\$4,999**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세일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특가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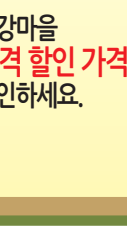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휴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원적외선
명품매트

한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바르나나 워싱턴 월딘 자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우산스 호노키 목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1,499~~ **\$999** +tax

월간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3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 원적외선 방사
- 미세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5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간병사 코디네이터
구합니다

Hanmi Homehealth
(이전 CSC Home Care)

Springfield Office 에서
간병사 Schedule 관리 하고
Client Follow Up 하실 분
구합니다.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관리 필요 합니다.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급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카페에서 금/토/일 주방에서
뒷일 하실분 구합니다.
443-386-051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폴/파타임, 배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
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싱글/타운방 렌트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
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 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
문 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임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라결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케어피플 홈헬스 (센터빌 & 애난데일) 에서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한미홈헬스 간호사 코디네이터 구함
간병사 스케줄관리, Client Follow-up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가능하신분
▶KDLHJL@gmail.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 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
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
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 무료 서비
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폴/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폴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폴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
임, 캐쉬메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중앙일보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에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는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센터빌 롯데근처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운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센터빌 콜린 파월 초등학교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2.5, 차고2, 전부 마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모던형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입주 571-239-6054 챠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페어팩스 코스코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유포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에난데일 H마트 근처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챠틀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반지하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703-629-6275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챠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 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 ~9시반까지 8세, 9세 아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컷시티 픽업 풀 or 파티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콘도 렌트 에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방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한강뒤 싱글홈 새로 고친 반지하 방3, 욕실2 큰 거실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에난데일 메시아장로 교회 뒤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비흡연자 환영 703-887-5173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근처 싱글홈 지하 전체 렌트, 조용한 동네, 워크아웃, 큰 방1/부엌/욕실/세탁기,건조기/유포 6월1일 이후 입주 가능 571-271-3556 (문자요망)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 합니다. 방 1, 풀베스 1, 셰어 키친, 파킹티켓1, 월 \$800 571-623-0255 에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사무실/점포 렌트 에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sq 571-237-3411 센터빌 던컨빌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에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콘도매매 \$375,000 스프링필드 방2, 화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넓은 리빙룸, 발코니2 703-813-8949 콘도매매 \$369,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챠틀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571-239-6054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집
▶703-919-0472

Commingsoon 리스트
Annandale 싱글홈 \$890,000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South Riding 싱글홈 \$1.2m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세탁기,건조기,발코니,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맥,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H Mart 가가움
▶703-813-8949

1. 패어팩스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 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유닛, 맥,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 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트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트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렌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렌트수익 \$3,000
3. 패어팩스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렌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055

사업체 매매

2001년부터 에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시설 일체 포함하여 가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합니다. 관심있으

신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찬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대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이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굿 \$3,000
571- 814-8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팔립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맥, 팬스, 지붕 제너럴 컨택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 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 인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맥, 그외 모든 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틱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 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 및 설치 (키친 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 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 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 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파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 420-5492 / (703) 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가게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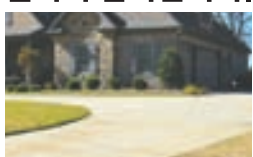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데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크패드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Better than the Best Quality”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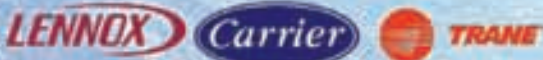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MP MilestonePoint
NMLS #320841

비즈니스 융자 / SBA / 상용 부동산 융자 / 주택 융자
Terry Kwon, Loan Originator
NMLS #2620208

- SBA 비즈니스 융자 \$5,000,000까지
- 35개 이상의 SBA 전문 랜더
- 추가 SBA론, 별도 브로커 비용 없음
- 새로 비즈니스 인수 - 10% 다운
- SBA 부동산 융자 - 10% 다운, 단 51% 공간 직접 사용 요구, 25년 상환
- 크레딧 손상 안되는 SBA 무료 승인

- 단기 간단하고 빠른 머천론
- Business Line of Credit
- 기계 장비 융자
- 상용 부동산 융자
- 투자용 부동산 융자
- 단기 부동산 융자: 건축융자, 브릿지론, Fix & Flip

"오랜 경험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부동산 융자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전화: (631) 624-4480
웹사이트: milestonepointinc.com

- 론팩토리는 미국내에서 매년 가장 많은 주택 모기지 클로징하는 브로커리지
- 240 이상의 모기지 프로그램에서 좋은 이자율과 조건을 찾아드리기 때문
- 론팩토리는 미국 48개주 라이선스 보유
- 즉석 모기지 이자율 견적- 무료 모기지 쇼핑

- 주택 구입/재융자
- 무료 상담 및 사전 승인
- 2차 융자: HELOC, HELoan
- FHA 낮은 크레딧과 적은 다운
- 세금보고서 대신 은행 명세서
- 외국인 주택 구매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기타 지역

하숙·렌트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레

개인 / 비즈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한국/서울 아파트렌트

동대문근교 한달렌트비 \$1,800
장/단기 및 시설 완비 (808)989-5424
한국 010-2807-0619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Annandale 타운 콘도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한 타운하우스 스타일 콘도 계단없는 1층, 엔드 유닛, 1,400 sqft, 방2, 화장, 집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

\$36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